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년사

Healthful Arteries, Hopeful Future

동맥을 더 건강하게,
미래를 더 희망차게

KSoLA

For us
For growth
For the people
For the future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년사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년사

Healthful Arteries, Hopeful Future

동맥을 더 건강하게,
미래를 더 희망차게

KSoLA

For us
For growth
For the people
For the future

KSoLA

Healthful Arteries, Hopeful Future

발행일 2022년 9월 15일

발행인 최동훈

발행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8

마포아크로타워 707호(우 04168)

02-3272-5330

www.lipid.or.kr

디자인 인권앤파트너스

ISBN 979-11-979446-2-8(03060)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있으며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목차

6 Identity

8 발간사

14 연혁

Intro

18 집단지성의 시작, '한국지질학회'

for us

우리 학회를
위한 시간

30 한국지질학회 + 대한동맥경화학회 =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36 벽을 넘어, 타 분야와의 협력

for growth

성장을 위한 시간

58 20년 동안 피워낸 꽃, 학술대회

96 역경 속에 자란 나무, 공식학회지 JLA

102 다시 심은 씨앗,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과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사업

110 환자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다

116 이상지질혈증을 가르치는 교육사업

120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FH) 등록사업

122 콜레스테롤의 날

for the future

학회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

128 미래를 바라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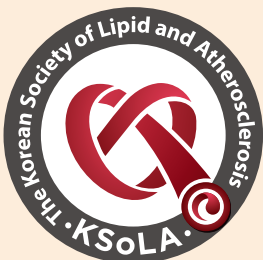
162 에필로그

Identity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and Atherosclerosis

2001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2021

Mission

지질 이상과 동맥경화증을
극복하여 인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Overcome Dyslipidemia and
Atherosclerosis and Make
Humanity Healthier and Happier

Vision

지질 이상과 동맥경화증의 연구,
치료의 세계적 리더

World Leader in Dyslipidemia
and Atherosclerosis Research
and Treatment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임상의학(내분비대사학, 순환기학, 신경학)과
기초의학(생화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식품영양학, 체육학, 예방의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활발하게 융합학문을 탐구하는 학술단체이며,
지질 및 동맥경화증에 관한 학문의 발전과
국민 건강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한다.

발간사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1대 회장
장학철



지난 2021년 9월 10일, 한국지질학회와 대한동맥경화학회의 통합 20년을 맞아, 코로나 감염으로 조촐하게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전임 임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주년 기념식에 학회 발전에 기여하신 많은 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하였습니다.

최영길, 이흥규 교수님 등 몇 분의 선대 회장님, 이사장님을 모시고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학술대회, 학회지, 환자등록사업, 교육사업 등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학회에서 성심을 다하여 준비했지만, 코로나 감염의 상황으로 그동안 학회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과 함께 자리를 못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주년 기념사는 우리 학회의 역사와 이야기를 한 번의 기념식으로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위안이자, 학회의 발자취입니다. 또 새로운 20년을 향한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기념사 책을 통해 지나온 학회의 발자취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니, 학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해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길을 열어주신 선대 임원님, 현재 학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원님과 열정적인 회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념사 발간을 통하여 모든 학회 임원과 회원이 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이를 기회로 학회 도약에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20년간의 이야기가 앞으로 학회를 이끌어갈 후배 회원에게 따뜻한 토닥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주년을 다시 축하하고, 20년 동안 잘 성장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또 기념사의 발간을 축하하며, 책을 통해 받은 토닥임이 학회 발전의 길잡이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2대 회장
김명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지질·동맥경화학 분야의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영양학, 체육 및 보건학 등의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대표적 학회입니다. 국내학술대회 뿐 아니라 국제학회인 ICoLA를 다년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대표 국제학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JLA도 PubMed Central 등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로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을 발간했고, Dyslipidemia Fact Sheets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출범한 후 지난 20년간 여러 역대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의 큰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앞서 어려운 길을 뚫고 걸어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20주년을 기념하고, 또 다른 비상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매우 뜻 깊은 시기입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주년 기념집 발간 또한 축하합니다. 이 기념집을 통하여 이제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를 디딤돌 삼아 새로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념집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이어질 집을 기대하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11대 이사장
최동훈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꿈꾼다면 먼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 작업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년사 발간으로 쉽지 않은 작업을 잘 마쳤으나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집으로 이야기하면 그저 집터를 정하고 땅을 파고 골조를 세운 정도로,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20년, 골조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우리 선배님들이 아주 좋은 땅을 마련하고 골조까지 잘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과제는 현재 활동 중인 후배 연구자들에 달려있습니다. 지나온 길에서 배울 것들을 습득하고, 그 배움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이 길을 가게 될 이들에게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초 작업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통합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역대 회장 및 이사장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연도	이사장	연도	회장
2001 - 2002	이흥규	2001	서정돈
		2002	박의현
2003 - 2004	박정의	2003	김광원
		2004	손호영
2005 - 2006	박영배	2005	박정의
		2006	이흥규
2007 - 2008	이현철	2007	최경훈
		2008	박영배
2009 - 2010	신현호	2009	정헌택
		2010	이현철
2011 - 2012	이문규	2011	채성철
		2012	신현호

연도	이사장	연도	회장
2013 - 2014	김치정	2013	이종호
		2014	이문규
2015 - 2016	박경수	2015	서홍석
		2016	김덕경
2017 - 2018	김효수	2017	이인규
		2018	정명호
2019 - 2020	박종열	2019	우정택
		2020	백상홍
2021 - 2022	최동훈	2021	장학철
		2022	김명아



2011

- 채성철 회장(11대) 취임
- 이문규 이사장(6대) 취임
- 2011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의 날 발행
-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폐간 후 KCJ 학회지로 통합
- ‘2011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의 날’ 개최
- 제4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하계심포지움
- 제42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 우수자유연제상 시상
-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2012

- 신현호 회장(12대) 취임
- 2012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의 날 발행
- 국문학회지로 지금의 JLA를 창간
- ‘2012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의 날’ 개최
- 제43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The 1st ICLA¹⁾ - The 44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 우수자유연제상 시상
-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2013

- 이종호 회장(13대) 취임
- 김치정 이사장(7대) 취임
- 2013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의 날 발행
- ‘2013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의 날’ 개최
- 제45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bdominal Obesity(ICA0 2013) 개최
- The 2nd ICLA - The 46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2014

- 이문규 회장(14대) 취임
- 2014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정 워크숍 발행
- 2014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의 날 발행
- ‘2014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의 날’ 개최
- 제47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The 3rd ICLA - The 48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 우수자유연제상 시상
-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2018

- 정명호 회장(18대) 취임
- 김재룡, 이명숙 부회장 취임
-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4판 발행
- KCJ로부터 JLA 독립 및 전자저널로 변경
- 제55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The 7th ICoLA - The 56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 우수자유연제상 시상
- FH 심포지움 개최

2017

- 이인규 회장(17대) 취임
- 김양하, 김영미 부회장 취임
- 김효수 이사장(9대) 취임
- 제53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The 6th ICoLA²⁾ - The 54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 우수자유연제상 시상
- Guidelines for Lipid and Atherosclerosis Management (GLAM) 8~10차

2016

- 김덕경 회장(16대) 취임
- ‘2016 건강한 혈관 만들기 캠페인’ 개최
- 제5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The 5th ICLA - The 52nd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 우수자유연제상 시상
- Guidelines for Lipid and Atherosclerosis Management (GLAM) 5~7차

2015

- 서홍석 회장(15대) 취임
- 박경수 이사장(8대) 취임
-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3판 발행
- ‘2015 콜레스테롤 주간 행사’ 개최
- 제49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The 4th ICLA - The 50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 우수자유연제상 시상
- Guidelines for Lipid and Atherosclerosis Management (GLAM) 1~4차
-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FH) 등록사업 재시작

2019

- 우정택 회장(19대) 취임
- 지선하 부회장 취임
- 박종열 이사장(10대) 취임
- JLA 영문 및 연 3회 발행으로 개편
-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교육프로그램
- 제57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The 8th ICoLA - The 58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 우수자유연제상 시상
- Guidelines for Lipid and Atherosclerosis Management (GLAM) 11~13차

2020

- 백상홍 회장(20대) 취임
- 오구택 부회장 취임
- 제59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21st International Vascular Biology Meeting (IVBM 2020) in conjunction with the 9th ICoLA & the 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Vascular Biology and Medicine (KVBM)
- JLA의 Scopus, PubMed Central 등재
- 학술상 시상
- 우수자유연제상 시상

2021

- 장학철 회장(21대) 취임
- 권영근 부회장 취임
- 최동훈 이사장(11대) 취임
- 제6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The 8th ICoLA - The 62nd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 Guidelines for Lipid and Atherosclerosis Management (GLAM) 14~15차
- 제1차 A to Z 연수강좌 개최

2022

- 김명아 회장(22대) 취임
- 김재범 부회장 취임
- 제63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ICoLA 2022 with APSAVD 개최 예정

1)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 ICLA(2012~2016)

2)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and Atherosclerosis : ICoLA (2017~)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지성의 시작, '한국지질학회'

콜레스테롤(지질)은 몸에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은 법.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만들어지거나 쌓이면 문제를 발생시킨다. 동맥에 축적되어 동맥이 막히고, 동맥이 막히면 연결된 기관이 망가진다. 심장으로 가는 동맥에 경화가 생기면 심장이 망가지고, 뇌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뇌졸중과 치매가 온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는 것이 70%, 음식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이 30%이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들 때도 필요하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질환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치료를 위한 약을 만들 수 있다.

1985년, 미국의 마이클 S. 브라운과 조지프 L. 골드스타인은 「콜레스테롤 대사 조절에 관한 그들의 발견」이란 논문을 발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의료계는 내과 진단의 경우 그 종류가 10개



1941~
마이클 스투어트 브라운
Michael Stuart Brown



1940~
조지프 레너드 골드스타인
Joseph Leonard Goldstein

미만일 정도여서 국제적 논문발표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연구조차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다. 노벨상을 받은 그들의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의학계를 보고 자극받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할 수 있다는 열정만큼은 뒤처지지 않았다.

1986년, 유언호, 최영길, 이흥규, 허갑범 등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였다. 함께 공부하고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었다. 말 그대로 의학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집단지성'이 싹을 틔웠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학회를 조직하기에는 여건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 일단 연구회로 시작해 첫 발을 떼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몇몇 대학의 리더들이 모여 콜레스테롤로 인해 생기는 병, 진단, 치료에 대한 사례들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었다. 느렸지만 나아갔고, 나아가며 알아갔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던가. 개인이 모여 하나가 되는 집단지성의 기쁨은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희열이었다. 물론 기쁨만 있는 과정은 아니었다. 모일 장소가 없어 여러 대학을 돌아다녀야 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컸다. 적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 당시 재정 감사를 받으러 갔더니 감사해주는 신순현 교수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보통 메인 학회가 역대 예산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500~60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발전 많이 시켜야 해.”

당시 부총무였던 신현호 교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멋쩍게 웃었다. 선배의 격려가 힘이 되었을까. 동맥경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다.



ICoLA2019 개최 기념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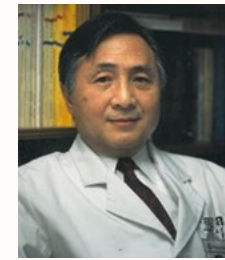
1990년, 함께 가는 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학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드디어 지질연구회가 아닌 지질학회가 된 것이다.

1990년 11월 29일,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국제지질심포지움’을 개최했다. 1대 회장에는 내분비 대가인 최영길 교수가, 2대 회장에는 순환기 대가인 유언호 교수가 선출되었다.

1991년에는 제1차 춘계학술대회를 시작했다. 선진국 리더들을 초청했고, 장소는 신라호텔이었다. 참여 인원을 100명 이하로 예상했는데, 4-500명이 모였다.

이후 1996년에 대한의학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정식 학술 단체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00년 아시아태평양 동맥경화 및 혈관질환학회(Asian-Pacific Society of Atherosclerosis and Vascular Disease, APSAVD) 회원, 2004년에는 국제동맥경화학회(International Atherosclerosis Society, IAS)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Remembrance



유언호
(1935-2008)

유언호 교수는 의과학연구소 내 영양연구센터 연구부장을 지내며 영양학을 연구하게 됐고, 자연히 지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관심은 열정을 만들고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 실천이 맺은 열매가 바로 ‘지질학회’다. 지질학회 회장을 역임하던 당시 그는 서울과 대구, 부산을 순회하며 고지혈증에 관한 워크숍을 열었다. 2년 동안 10회, 최다 학술대회 개최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먼저 의사가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눈을 감을 때까지 후학들의 연구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랐다. 지금 우리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라는 이름으로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길을 터준 선배들 덕분이다. 그리고 그 선배들 중 유언호 교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를 추모해야 한다.

Remembrance



허갑범
(1937-2020)

故 허갑범 교수는 한국인의 당뇨병은 서양인과 다르다고 강조해왔다. 비전형성 당뇨병, 즉 비만하지 않은데도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로부터 시작하여 비만을 동반한 전형적인 서양스타일의 당뇨병까지 다양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꼭 맞춤형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1년 한국지질학회가 창립할 때 내분비학 분야 이사로 활동을 시작하여, 1995년 한국지질학회 회장을 맡아 학회를 이끌었고, 2000년에는 대한동맥경화학회 회장도 역임하였다.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에서 영양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하였고, 정년퇴임 이후에는 대사증후군포럼을 조직하여 대국민 교육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후학들에게 한국인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를 계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1년故 허갑범 교수가 집필하던 책이 ‘인슐린저항성과 한국인 당뇨병의 맞춤치료’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한국지질학회 1991년 창립 당시 자료: 창간사

창간사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사회적 발전과 변화에 동반하여, 환경의 변화와 식생활 그리고 생활양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동반한 중대한 질병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핵심은 현대병이라 할 수 있는 동맥경화증의 증가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최근의 통계에서 뚜렷이 늘어나고 있음을 심각히 주목하고 있다. 또 이외 선행요인이 되는 것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고지혈증 등의 질병현상이라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병현상의 이해와 더 나아가서는 그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지질대사의 이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지질에 대한 연구를 해 오던 분들이 각계에 많이 있었으며 임상화학의 재분야와 기초의학 및 생물학 일반의 여러 분야에 나뉘어 활동을 해 왔던 바, 학제간의 교류가 소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 학문의 발전에 장애를 느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질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이 분야의 연구성과와 각종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임상과 기초, 의학과 생화학, 영양학등의 일반 생리학 등 간의 상호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개방된 공동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생명과학력을 하나로 융합함으로써, 이 중대한 국민보건상의 문제에 대응하기로 뜻을 합하여 한국지질학회를 발족한 바 있다.

한국지질학회를 모든 분야의 인사들에게 개방하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함으로써 최대한의 힘을 모으고져 한국지질학회지를 창간 하는 바이다.

1991년 7월
한국지질학회 회장 최영길

한국지질학회 1991년 창립 당시 자료: 한국지질학회 임원명단

한국지질학회 임원명단

1. 임원진

회 장	최 영 길 교수 (경희대 내과)
부 회 장	유 언 호 교수 (중앙대 내과)
편집위원장	이 용 규 교수 (서울대 내과)
총무간사	김 영 실 교수 (경희대 내과)
기획간사	배 용 기 교수 (한양대 생화학과)
학술위원회	박 현 서 교수 (경희대 석공영양학과)
	김 진 규 교수 (서울대 임상병리과)
	박 용 복 교수 (경북대 유전공학과)
	신 순 현 교수 (중앙대 내과)
	최 경 훈 교수 (연세의대 내과)
감 사	박 영 배 교수 (서울대 내과)
	최 영 선 교수 (대구대 석공영양학과)

2. 이 사

영양학분야	차 범 식 교수 (서울대 생화학교실)
	조 상 회 교수 (호성여대 석공영양학과)
	이 양 작 교수 (연세대 식생활과)
생화학분야	주 충 노 교수 (연세대 생화학과)
	백 태 용 교수 (한양대 화학과)
근원기학분야	유 원 상 교수 (연세대 내과)
	박 의 현 교수 (경북의대 내과)
내분비학분야	민 현 기 교수 (서울대 내과)
	허 장 범 교수 (연세대 내과)
임상병리학분야	김 상 인 교수 (서울대 임상병리과)

3. 사무실 : 경희대학부속병원 내과 내분비연구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P)

전화 : 966-5191 (교환 2611)

FAX : 968-1848

한국지질학회 1991년 창립 당시 자료: 한국지질학회 회칙

한국지질학회 회칙

제1조 본회는 "韓國 脂質 學會(Korean Society for Lipidology, KOSL)"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제3조 본회는 脂質學 분야의 연구와 학술적 교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건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연구 발표회 및 학술 강연회 개최
- (2) 학술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연락 및 교류
- (4) 연구의 장려 및 조성을 위한 사업
-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정회원 : 지질학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의 건립요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3) 찬조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 (4) 명예회원 :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인준한 개인 또는 단체

제6조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편집위원장 1명 그리고 총무, 재무, 학술, 기타의 임무를 수행하는 간사 다수명을 둔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하고 차기회장이 된다.
- (3)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 징계 상황을 감시한다.
- (4) 편집위원장은 학술회지 및 도서 발간을 총괄한다.
- (5) 감사는 회장의 회무처리를 보좌한다.

제7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편집위원장과 간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 회장, 부회장, 감사,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제9조 본회는 각 전공분야별로 약간명의 이사를 두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0조 본회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 편집위원회 및 기타 소위원회를 둔다.

1. 총회는 정기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인준
- (2) 회칙의 개정
- (3) 예산 및 결산
- (4) 사업계획
- (5) 기타 사항

2. 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원의 자격
- (2) 예산 결산안
- (3) 사업계획안
- (4) 기타 사항

3. 임원회는 회장단, 편집위원장 및 감사로 구성하며 회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편집규정에 따라 학술회지 및 도서의 발간임무를 수행한다.

5. 소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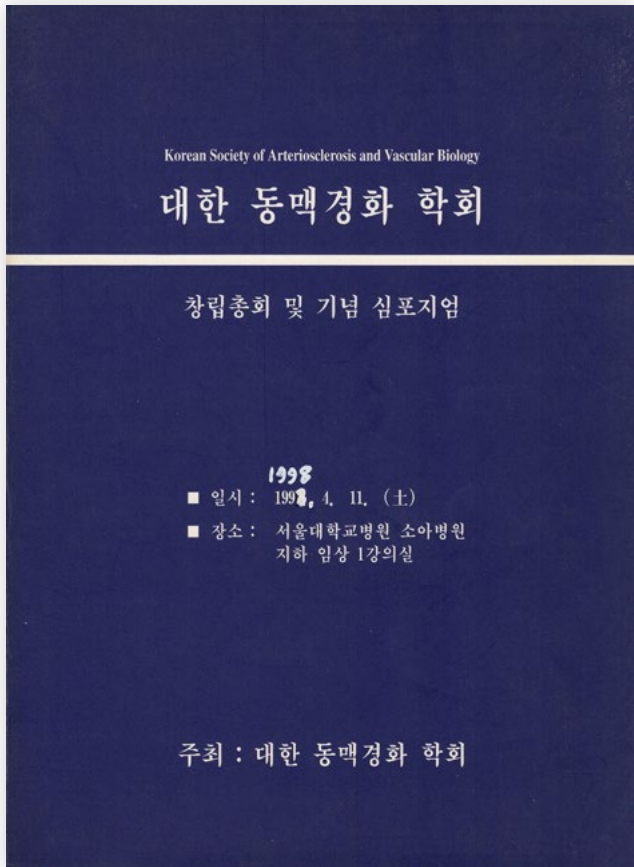
제11조 본회의 지경은 회비, 차신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제12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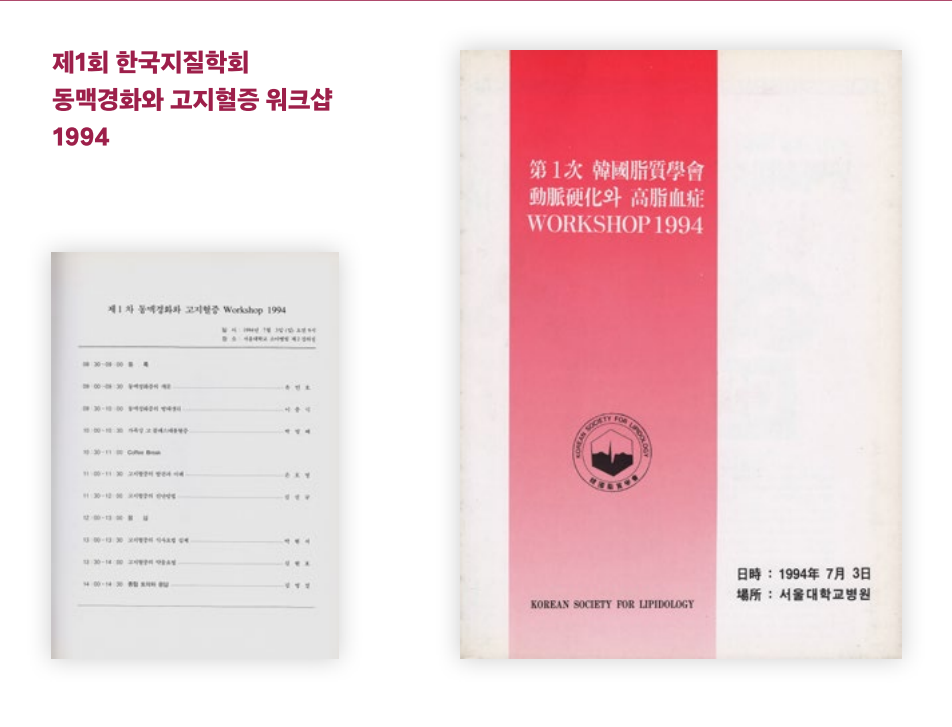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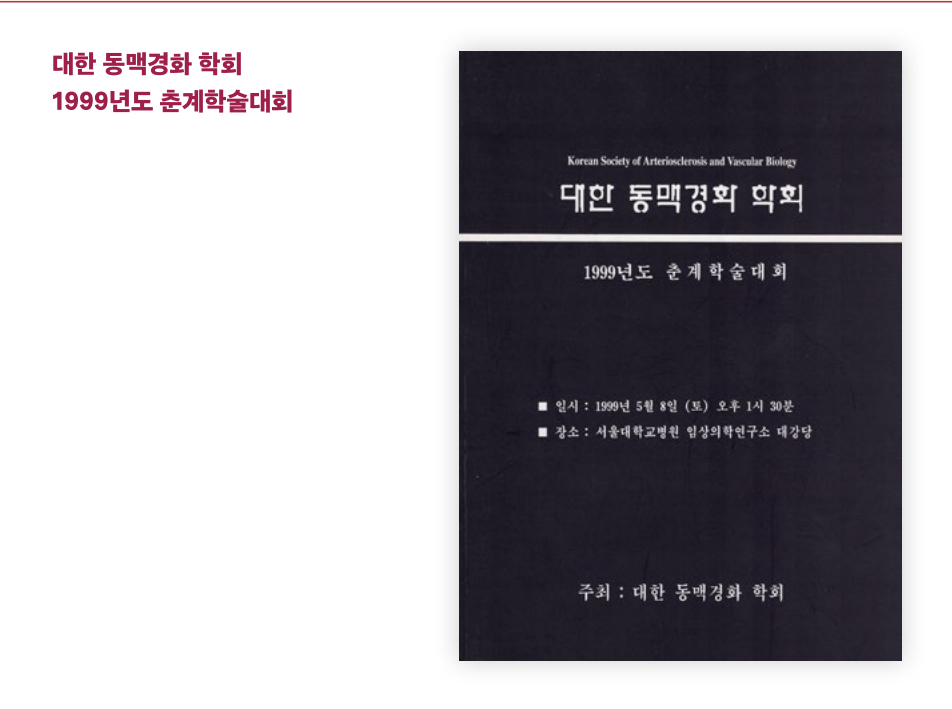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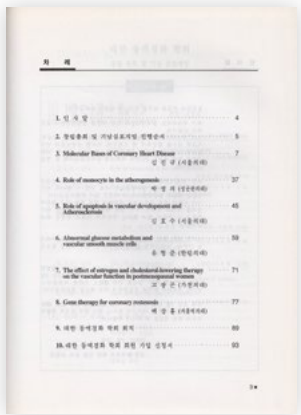
제13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5조 본 회칙은 창립과 동시에 발효한다.



대한 동맥경화 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움



1

FOR US

우리 학회를
위한 시간

KSoLA
Healthful Arteries, Hopeful Future

2021

Korean Society for Lipidology + Korean Society of Atherosclerosis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한국지질학회 + 대한동맥경화학회 =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00년, 제 길을 잘 가고 있던 한국지질학회에게 고민이 생겼다.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질병을 다루기 위해선 지질 외에 다른 지식도 필요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오면 당뇨병만 알아서는 치료가 어렵다. 당뇨병 환자는 혈압도 높고, 이상지질혈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 환자만 하더라도 당뇨병도 같이 있고,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수 있으며, 콩팥에 병이 있을 수도 있다. 임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전문화, 세분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협력이 필수였다.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 물음표는 마침내 하나의 느낌표에 닿았다.

‘먼저 동맥경화를 연구하는 학회와 협력을 하면 좋겠다!’

2001년
한국지질학회와 대한동맥경화학회 통합

202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통합출범 20주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동맥을 더 건강하게,
미래를 더 희망차게
Healthful Arteries,
Hopeful Future

당시 회장이었던 이흥규 교수가 대한동맥경화학회 회장이었던 서정돈 교수를 찾아가 통합의 의사를 전했다. 한국지질학회는 이상지질혈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종착역은 동맥경화이니 대한동맥경화학회와 통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대한동맥경화학회도 긍정적이었다. 동맥경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자면 단연 지질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두 학회는 겹치는 회원이 많았다. 대한동맥경화학회에는 순환기내과 의사가 많았는데, 그들 중 많은 인원이 한국지질학회에도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 학회는 어쩌면 이미 한 가족일지도 모르다는 생각으로 통합의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학회의 특징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회원들도 있었고, 통합하면서 겪게 될 진통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당시 대한동맥경화학회는 창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통합이 더욱 어렵고 조심스러웠다. 더군다나 순환기 분야에는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순환기학회 등 연관 학회가 있는데, 한국지질학회는 연관학회라 할 수 없었다. 연관학회도 아닌 한국지질학회와 통합하는 안건은 일부 회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하지만 협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표가 앞으로 긍정적인 여러 느낌표들을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회원들이 더욱 많았다. 그렇다고 통합을 숫자로 몰아갈 수는 없는 일. 두 학회의 임원진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설득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함께'라는 팻말이 있었다. 끊임없는 대화가 결국 통합을 이끌어낸 것이다.

드디어 2001년, 한국지질학회와 대한동맥경화학회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형평성 있는 임원 선출 여성 회원 참여 독려 학연·지연·인지도 배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1대 이사장은 통합 당시 한국지질학회 회장이던 이흥규 교수가, 1대 회장은 대한동맥경화학회의 서정돈 교수가 맡았다. 먼저, 순환기 분야와 부드러운 협력을 위해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순환기학회 등과 합동 학회를 열기로 했다. 2001년 3월, 통합학회의 이름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폭넓은 학문 교류와 발전의 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통합학회는 서로를 배려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 중 가장 먼저한 것은 우선 임원을 형평성있게 선출한 것이다. 이사장을 한 번은 순환기내과, 한 번은 내분비내과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임원뿐 아니라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까지도 구성원들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했다. 프로그램도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점에 두고 기획하고 준비했다. 성별의 차별도 끼어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그 시절만 해도 여성에게 총무 등 임원을 맡기지 않았는데, 우리 학회는 여성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은 물론 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학연이나 지연도, 학교 인지도나 사람의 인지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했고, 열심을 가지고 회원으로 등록하는 그 누구라도 포용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학회는 서로의 영역은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함께일 때는 구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난 내분비예요”, “난 지질·동맥이예요,” 이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함께일 때는 우리 모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일 뿐이다.

Q.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Naming Episode

이름을 짓는 일은 어렵다. 이름은 부르기 쉬워야 하고, 뜻도 좋아야 한다. 게다가 이름은 불가피한 일이 없는 이상 바꾸지 않고 평생을 유지한다. 학회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지은 이름이다.

하지만 특별한 이름을 접한 이들이 그렇듯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 이름이냐.’고. 그 물음에 대해 이 지면을 통해 답한다.

왜 대한이 아니고 한국이예요?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보통 의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회 이름에는 ‘대한’이 들어간다. 하지만 **의사와 일반 연구자가 함께하는 학회는 ‘한국’을 사용한다.**

지질이 뭐예요? 땅을 연구하나요?

우리 학회 이름에 가장 많이 받는 오해다. 지형이나 땅을 연구하는 학회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한지질학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질은 ‘땅 지(地)’가 아니라 ‘기름 지(脂)’를 사용한다. 기름 지(脂), 바탕 질(質). 지방질(콜레스테롤)을 의미한다. 이름을 지을 때 ‘지방질학회’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지방은 또 서울 이외의 지역을 뜻하는 지방과 헷갈릴 수 있어 결국 지질학회로 정했다.

Cooperation Beyond Walls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벽을 넘어, 타 분야와의 협력

환자는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은 한 가지 질환만 가지고 있지 않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환은 여러 합병증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렇기에 한 질환만 가지고 한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통합적으로 협력하는 의료가 필요하다. 의사는 환자라는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신의 환경 외에 다른 환경을 경험하지 않고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임상 의사가 기초를 모를 수 있고, 기초 분야의 전문가는 임상 의사의 현장을 알 수 없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대개 그가 속한 분야에 국한된다. 여러 분야의 전문 영역을 혼자 다 섭렵할 수는 없다. 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심장을 잘 모르고, 심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대사를 잘 모른다. 지질 전문가라고 해도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생산되고, 간에서 대사되며, 간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맞다. 이는 의학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성인병은 생활습관에 의한 발병이 많기 때문에 생활습관의 개선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영양의 균형도 생각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한다. 그것까지 치료의 영역이다.

우리 학회는 벽을 허물고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한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포용하기로 했다

결국 만남이다. 질환이 여러 증상을 불러오는 것처럼 한 사람은 여러 ‘한 사람’과 만나야 한다.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치료’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공유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학회는 벽을 허물고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한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포용하기로 했다.

‘우리가 모여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자. 그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혈관을 튼튼하게 할 수 없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지질과 동맥에만 머물 수는 없다. 결국 핏속에 기름(지방질)이 많아지면 혈관이 막히니 기름을 덜 먹게 해야 한다.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학회의 목표이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도 학회의 목표다. 목표를 위해 벽을 넘어 영양학자들을 만나자. 밥이든 빵이든 넘치면 기름기로 변한다. 기름기 많은 걸 덜 먹게 하려면 영양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비만하고도 연결이 된다. 운동 전문가들도 필요하다. 비만이 되면 당도 같이 올라가면서 당뇨 혈당이 올라간다. 당뇨병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방을 하지 못하고 초기에 치료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혈관이 막히면 뚫어줘야 한다. 그러면 심혈관, 뇌혈관을 치료하는 순환기내과, 신경과 전문의들도 필요하다. 사실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질과 동맥경화를 안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손이 되고, 누군가는 발이 되고, 누군가는 입이 되어야 한다. 신체 각 부분이 모여 하나의 몸이 되듯, 우리는 서로 벽을 허물고 만나 각 부분을 맡아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치료할 수 없으니 ‘한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다시 한 마음이 된
우리 학회의 생각이었다. 이 생각을 6대 이사장을
말았던 이문규 교수는 ‘퓨전학회’라고 표현한다.

“최근에는 여러 분야가 함께하는 학회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 학회는 20년 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어요. 퓨전학회의 효시라고나 할까요?

의사뿐 아니라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였어요. 평의원
명단에도 같이 올리고, 임원으로도 같이 활동하며
동등한 입장으로 연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2011-2012년 6대 이사장, 2014년 14대 회장
이문규 교수



2009년 회장이었던 정헌택 교수는
함께할 수 있었던 기쁨을 말하기도 했다.

“혈관 조직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을 연구하는 게
면역학이에요. 그런데 그 염증에 의해 동맥경화가
생기거든요. 면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포괄적으로 동맥경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기쁜 일이에요.
함께 모여 하나의 병에 대해 풀어가고, 한 사람의
치료에 대해 연구한다는 거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지만 기쁜 일이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학회가 있다는 것이
더욱 기쁜 일이죠.”



지금도 우리 학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함께하는 분야는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기초의학, 생화학, 혈관 생리학, 약학, 영양학이다. 이 외에도 운동처방사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이렇게 여러 분야가 모여서 ‘동맥경화 연구’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쁘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정헌택 교수의 말처럼 모든 과정은 어려운 탓이다. 그리고 어렵지만 기쁜 일이라는 건 결국 과정 속에서 만나는 난관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 맞는 말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인 걸 알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학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점점 공정경쟁규약 등으로 지원을 받는 일이 힘들어지는데, 우리 학회는 더욱 그렇다. 어느 특정 과에 속할 수 있는 학회가 아니라 퓨전학회이기 때문이다. 지원을 못 받으면 재정이 넉넉할 수 없고, 재정이 모자라면 연구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장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기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사업이 일어나고, 분란이 많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분란도 적고, 도리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2019년 학회사무국 개소식
 왼쪽부터 김재택 교수, 김성래 교수,
 우정택 당시 회장, 박종열 당시 이사장,
 김치정 교수



재정적인 지원도 단일 학회가 아니라 어렵지만 그렇지 않아서 분란도 적고, 도리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름을 마주하는 일도 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롭게 타개하기로 했다.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큰 목표 아래, 필요한 작은 목표들을 정해 12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각각의 위원회는 각각의 목표를 갖고,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해 하나가 되어, 그에 맞게 공부하고 연구하며, 발표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실천한다. 함께 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환자라는 한 사람을 살린다는 학회의 사명감에서 비롯된다.

따로 또 같이, 기초 분야 & 영양 분야

우리 학회는 기초의학, 내분비·대사질환과 심장질환의 임상의학, 영양학, 체육 및 보건학 등의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대표적 학회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학회의 20주년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학회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기본지식이다. 지식을 실천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 또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학회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실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존중과 배려로 이루어낸 ‘따로 또 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분야가 함께하지만, 각 분야는 ‘따로’ 독립적인 전문 분야라는 것을 잊지 않고 존중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려하며 ‘같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20년을 지속해왔기에 함께하는 어느 한 분야, 소중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 드라마는 조연과 단역이 존재하지만, 우리 학회는 모두가 주연이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 두 분야를 소개하는 것은 두 분야만 주연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학회의 ‘따로 또 같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다른 주연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초 분야

임상의는 기초 연구에 대해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람의 혈관에서 내피세포를 분리해서 시험관에서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영상기법을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을 개발해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기초와 임상이 협력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회에 기초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학회에서 기초 분야는 지금까지 임상만큼 중요한 주연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학회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중개연구에 참여하기도 했고, 임상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따로 기초 연구 워크숍을 열고, 기초 연구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며, 전문성을 위해 연구하고 토론한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학회에 큰 도움이 되며, 결국 ‘따로 또 같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이다.

영양 분야

우리 학회와 다른 학회의 차별점이라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학회가 다루는 질병은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떤 좋은 치료도 완성될 수 없다. 매일매일의 건강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건강 관리에는 영양 관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학회는 또 다른 주연으로 영양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영양 분야는 매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다듬고 만들어서 학회에 제공한다. 학회가 국민들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때, 환자들이 어떤 식단을 짜야 하는지,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야 하는지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영양 분야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식품영양위원회의 위원들은 일반인들에게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다. 아무리 꼭 필요한 영양 관리 가이드라고 해도 자신들의 말이나 글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 환자들과 편안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라는 퍼즐에 꼭 필요한 조각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위원회



총무 및 재무

학회의 재원 확보 및 운영과 학술 행사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들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위원회

학회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기획하고, 각 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회원을 관리한다.



학술위원회

매년 봄과 가을에 학술대회를 구성하고, 진행하여 20년간 학술적 발전과 회원,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교류에 힘쓰고 있다.



간행위원회

공식 학술지 JLA(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및 관련지 간행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위원회

학회의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여 위상을 높이며, 국민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책적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대외협력위원회

해외 학회 및 인사들과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며, 기관 및 타 학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회가 지향하는 가치 추구를 위한 활동을 한다.

위원회



보험법제위원회

지질 및 동맥경화증과 관련한 보험, 법적 업무에 대한 연구, 심의를 담당한다.



교육위원회

2009년에 신설되었으며,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증 및 죽상경화성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의료인과 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진료지침위원회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이상지질혈증과 동맥경화증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단 기준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립한다.



임상연구위원회

학회가 지향하는 지질대사 및 죽상경화성 질환의 예방 및 조절에 부합하는 임상연구를 선정, 기획 및 지원하고 이를 완성하여 학문적인 성과를 성취한다. 또한 이를 통한 국민보건상의 이익을 제고한다.



기초연구위원회

지질·동맥경화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증진하고 활성화하며 이를 위해 정기 학술대회의 기초연구 관련분야 구성과 기초연구 워크숍을 운영한다.



식품영양위원회

혈중 지질 이상과 동맥경화증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대표적 환경 인자인 식품·영양 분야의 연구와 이해를 도모한다. 식품영양학과, 기초의학, 생명과학 및 임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학회 및 위원회 사업 결과가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011 콜레스테롤의 날



일반인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건강상담을 진행중인 모습



김재현 교수가 강의 중인 모습



상담 중인 김상현 교수와 뒤에 임상현 교수가 보인다.

2012 콜레스테롤의 날

일반인 대상 건강상담 진행 중인 모습



2014 콜레스테롤의 날 김치정 당시 이사장과 학회 위원, 자원봉사자 등의 단체사진



최근 개발한 홈페이지의 핫이슈 코너

2021 뉴스레터 3차 배포



2019 콜레스테롤 주간 이상지질혈증 건강강좌 포스터. 전국 13개 병원에서 환자 및 일반인 대상의 교육행사를 개최하였다.



2012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당시 좌장으로 참석한 정명호, 이문규 교수 및 당시 교육이사 안영근 교수를 비롯 초청 연자들과의 단체사진



광주 전남대병원 당시 현장 모습



한기훈 교수의 강의 모습

2012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해운대백병원 개최 당시의 현장과 초청 패컬티들



2017 9차 GLAM 당시 현장



당시 교육이사인 이상학 교수의 강의 모습

이상학 당시 교육이사를 비롯한 초청 좌장, 연사, 패널과 단체사진



개원인들의 활발한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2021 14차 GLAM 당시의 현장사진
COVID-19 시국으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박훈준, 박상민, 곽수현, 최성훈, 박재형, 김병진, 박세은, 이유홍, 안지현 교수

2021 제1차 A to Z 연수강좌 처음으로 개최된 All day 연수강좌이며 역시 COVID-19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생중계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박상민, 박훈준, 김진선, 이상학, 윤종찬, 전성완, 조상호, 김성래, 김병진 교수



2011 콜레스테롤의 날 행사. 당시 일반인들에게 무료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학회는 보통 질병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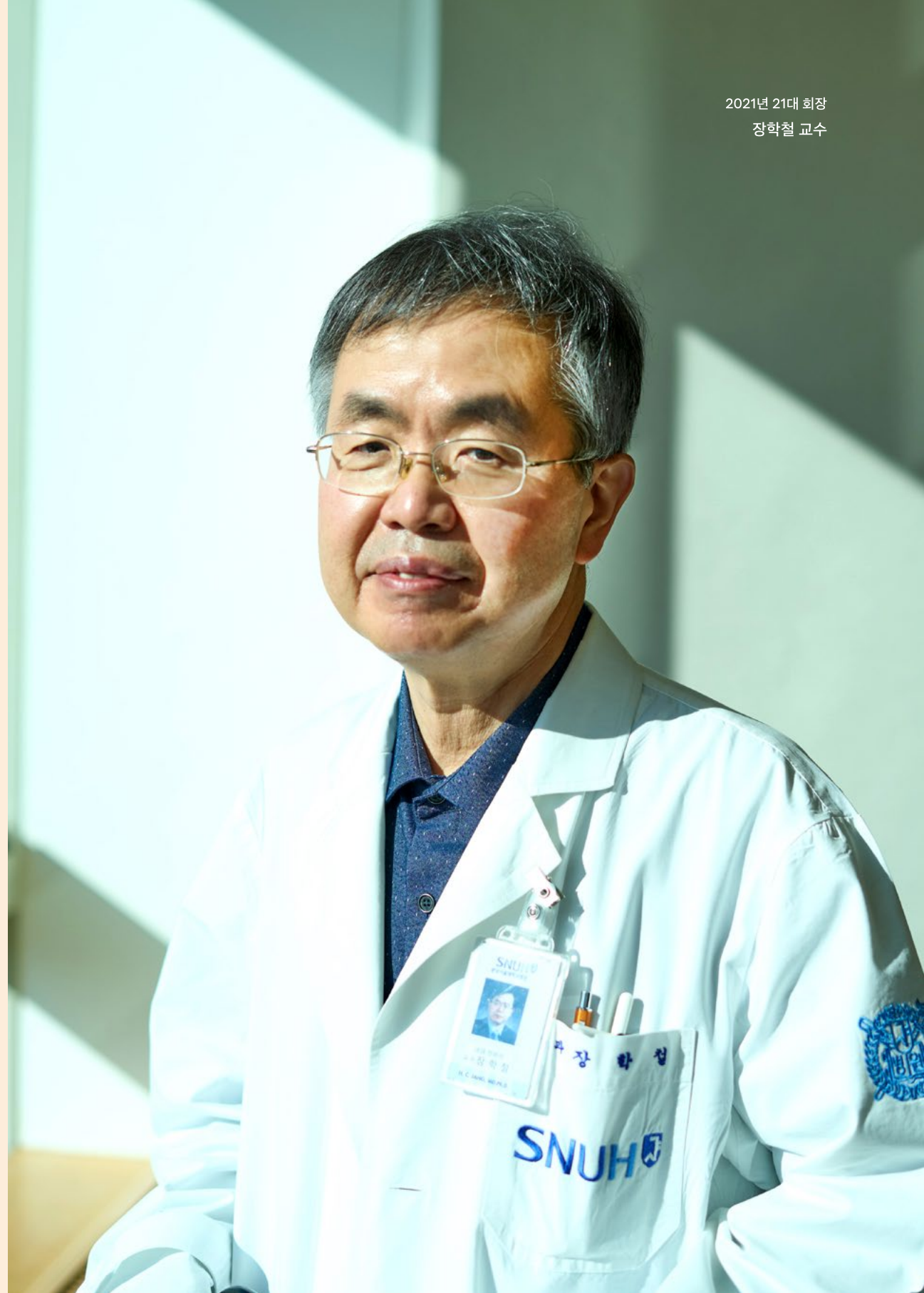
지질·동맥경화학회는 환자 입장에서 분류한다

학회는 보통 질병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당뇨병 연구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한다. 심장병은 대한심장학회에서, 비만은 대한비만학회에서 다룬다. 장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신경외과 등이다. 하지만 지질·동맥경화학회는 환자 입장에서 분류한다.

환자는 아픈 사람이지만 먹고 자고 운동하고 생각한다. 실제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다. 생활의 개선을 통해 혈압도 비만도 좋아질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치료방법이 요약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해도 편하고 접근도 편하다. 우리 학회가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가려고 하는 건 환자 중심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잃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가 우리의 자존감이다.

“지금까지 학회의 발전은 역대 임원진의 뛰어난 리더십과 많은 회원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관심 있는 기초의학, 대사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임상의학, 영양학의 전문가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소통과 협업의 학회 분위기가 지속되어 한층 발전하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되도록 회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회장이었던 장학철 교수의 말처럼 이미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씨앗을 심고 꽃을 심을 것이다.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을 각각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환자에게 선물할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이다. 백 사람은 한 사람이 백 명 모인 것이고, 천 사람은 한 사람이 천 명 모인 것이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치료하기 위해 모인 백 사람이고, 천 사람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환자도 소중한 한 사람이자 한 생명이다.



2

FOR GROWTH

성장을 위한 시간

KSoLA
Healthful Arteries, Hopeful Future

2021 ©
2001-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20년 동안 피워낸 꽃, 학술대회

학회는 학술대회가 없으면 존립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학회라는 건 학술대회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생긴 모든 일을 정리한다. 학문적인 정리도 하고 정책적인 정리도 한다. 치료지침도 정리한다. 이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발표하고 나누는 학술대회를 연다. 보통 1년에 두 번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춘계는 대개 국내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추계는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한다.

1991년, 한국지질학회가 창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를 열기 시작했다. 창립을 하게 된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도 가슴이 뛰는 일이었다. 아주 오래 지난 일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하는 회원들도 있다.

2008년 춘계학술대회 당시 강의 현장



신현호 교수는 이렇게 제1회 춘계학술대회를 회상했다.

“당시 오사카대에 재직하면서 일본국립심장혈관센터 연구소 소장이던 아키라 야마모토 교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의 창립 국제지질 심포지움에 참여하셔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 대해서 강의해주셨던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야마모토 교수님이 국립민속박물관을 관람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모시고 가 설명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렸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나 유물 등에 상당히 감탄하시면서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2009-2010년 5대 이사장
신현호 교수



우리 학회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매년 2회씩 춘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2001년 3월에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이름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독립적으로 개최하다가 2004년부터 춘계학술대회를 대한순환기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와 공동으로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로 개최해오고 있다. 추계학술대회는 2001년부터 국내학술대회로 개최하다가 2012년부터는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의 약칭은 ICLA라고 하였다가 2017년에 ICoLA(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로 변경했다.

2006년 4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2,300여 명이 모였다. APSAVD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아마 당시에는 규모가 가장 큰 학회였을 것이다. 이흥규 교수가 유치해서 2005년부터 준비했고, 2006년 이사장이 된 박영배 교수에게 바통을 넘겼다. 우리 학회만 하면 3, 400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대한심장학회와 유관학회를 설득해 함께 개최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학술대회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제학술대회가 많지 않던 때이고, 난타 공연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잘 배치해 많은 이들에게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아직도 동남아시아 학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당시 행사는 우리 학회에도 기폭제가 됐다. 학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회 기금도 모였다. 수익금도 생겨 커다란 발전의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대한심장학회에 책상 하나를 놓고 사용하던 학회사무국이 독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2년 9월 15-17일, 콘래드 서울에서 ICoLA 2022 with APSAVD를 개최하게 되었다. 학회 초기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APSAVD를 한국에서 한 번 더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학회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3년에는 ICAO(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bdominal Obesity), 2020년에는 한국혈관학회와 공동주관으로 IVBM 2020(21st International Vascular Biology Meeting)을 개최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ICoLA를 하이브리드 미팅으로 개최했다. 당시 학회에는 이틀간 국내외 80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6개의 기조강연, 23개의 심포지움에서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으며, 출범 당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년간의 학술대회, 학회지, FH환자 등록사업, 교육사업 등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우리 학회가 열심히 국제학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것은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고, 지질 및 동맥경화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학문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07년 춘계 학술대회

당시 강의 현장



2007-2008년 이현철 이사장 모습



2008년 춘계 학술대회

당시 강의 현장

당시 남문석 재무이사 모습



2008년 추계 학술대회



박정의 교수(가장 왼쪽)와 당시 초청연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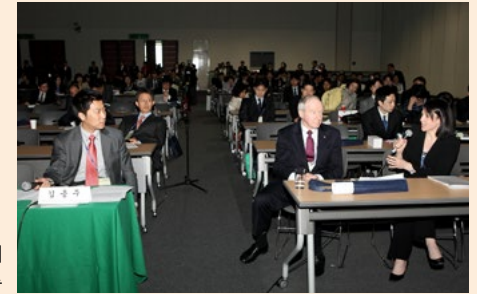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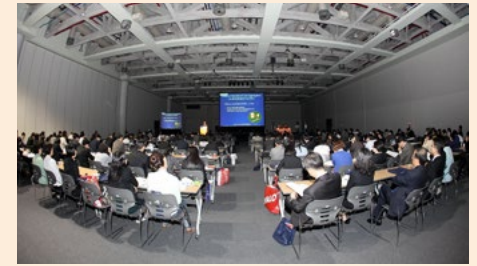


이명숙 교수의 강의 현장

포스터 전시 현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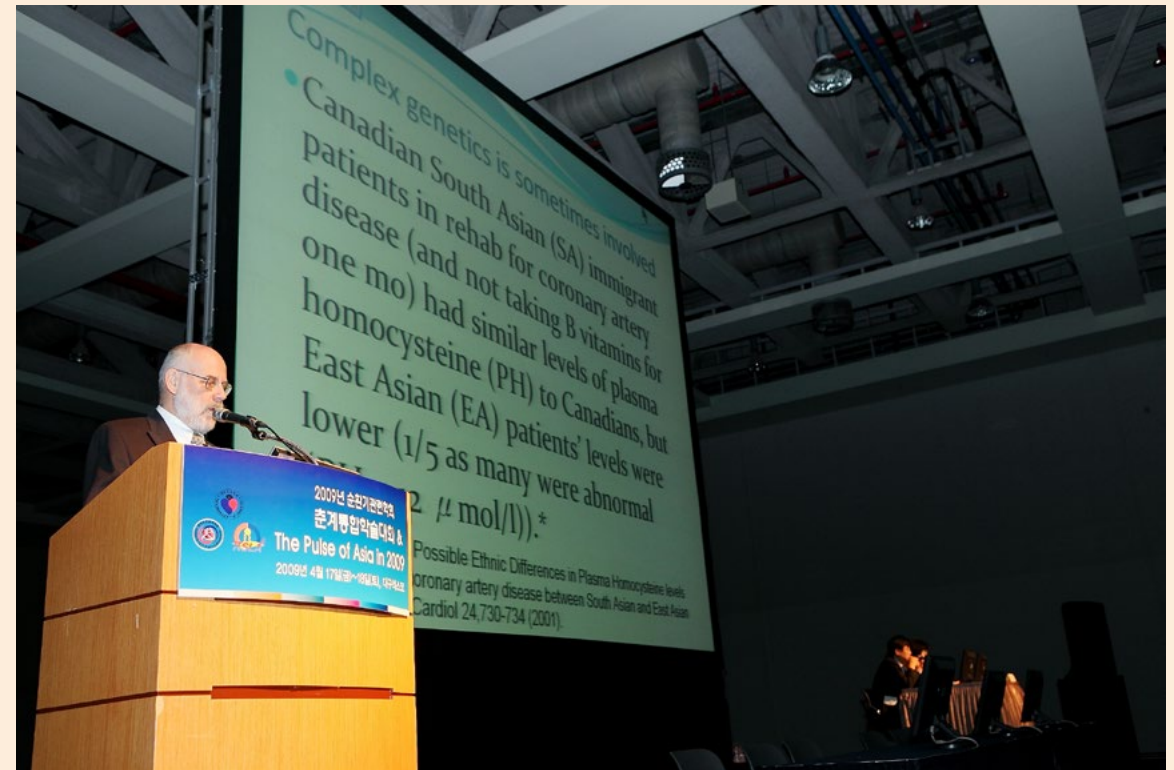


2009년 춘계 학술대회



강의 현장에서 패널이 연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Ted Greiner 교수가 강의 중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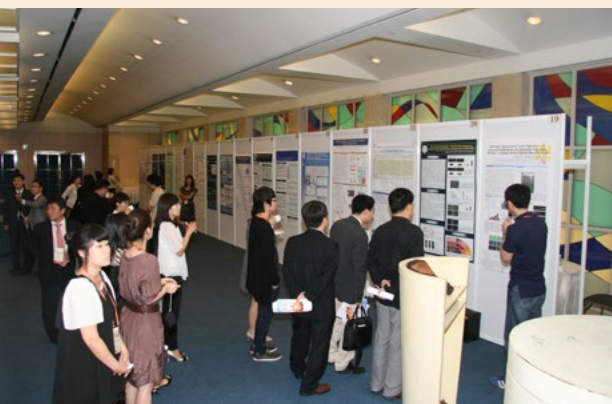
강의실 현장

2010년 추계 학술대회



정명호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당시 초청연사들

2009년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전시 현장



국제학술대회로의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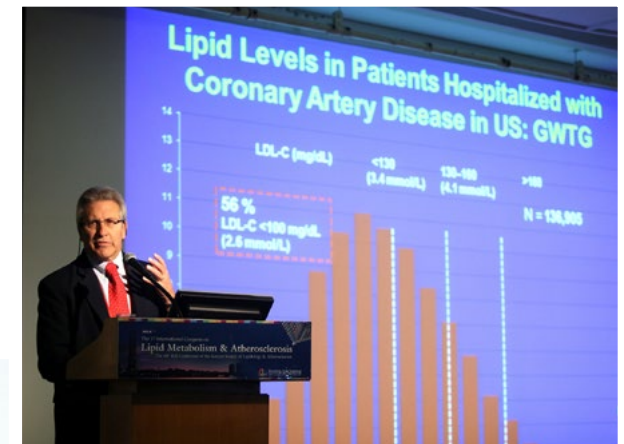
2012년 추계학술대회(당시 ICLA) 에서 강연 중인 Henry N. Ginsberg 교수

ICoLA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2011년, 추계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춘계학회는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려면 추계학회가 적합하다는 이야기였다. 수락하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기존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몇 차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국제학술대회로 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2012년 가을,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국제적인 대가들을 초빙했다. 회원이 늘어나니 회비도 늘어났다. 공정경쟁규약의 규정에 따르면 회비 수입에 대한 기준을 맞춰야 일정 규모 이상의 협찬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참가자가 150명 이상이고, 5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런 규정들이 첫해부터 충족됐다.



첫 국제학술대회인 ICLA2012에서 강의 중인 해외 초청 연사들

2021년에도 추계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인 ICoLA로 진행되고 있다. COVID-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이브리드 미팅으로 'ICoLA2021'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이를 통해 우리 학회는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학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ICoLA2021

통합 학회 출범 20년 기념식을 진행 중인 모습
 왼쪽부터 11대 이사장 최동훈 교수, 2대 이사장 박정의 교수,
 지질학회 초대회장 최영길 교수, 1대 이사장 이흥규 교수,
 21대 회장 장학철 교수



ICoLA2021 개최 당시 Congress Dinner 현장. 최동훈 이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ICoLA2021

당시 강의 모습. COVID-19의 상황에 따라 방역정책을 준수하여 하이브리드 미팅으로 개최되었다.

좌장역을 수행 중인 한기훈, 정인경 교수



좌장역을 수행 중인 서홍석, 이병완 교수



ICoLA2019

Welcome Dinner에서 축하공연을 보고 있는 해외 초청연사들





Basic Research Workshop 세션 강의를 마친 후 (왼쪽 오른쪽부터) 김재룡, 허경선, 한진, 조경현, (왼쪽 가장 왼쪽) 우창훈, (아랫줄 가장 오른쪽) 박영미 교수가 해외연사들과 함께한 모습



ICoLA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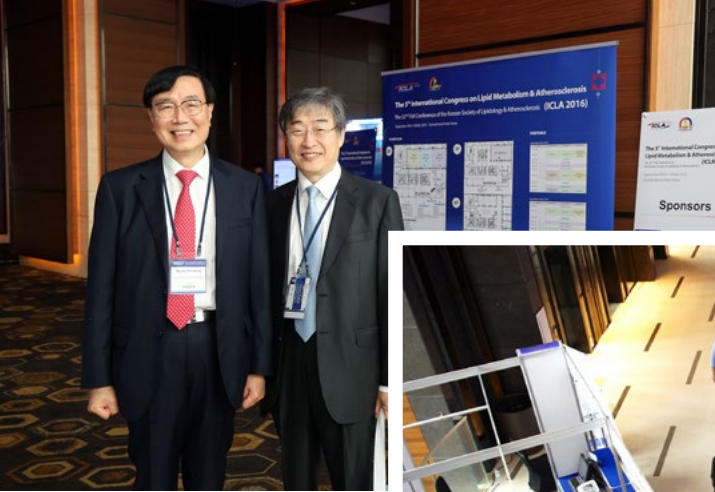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해외 참석자들



Poster presentation 현장에서 박재형, 정명호, 오구택 교수(가운데)가 발표 연구자들과 함께한 모습

유성훈 교수가 패널로서 연사에 질의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 정명호, 김덕경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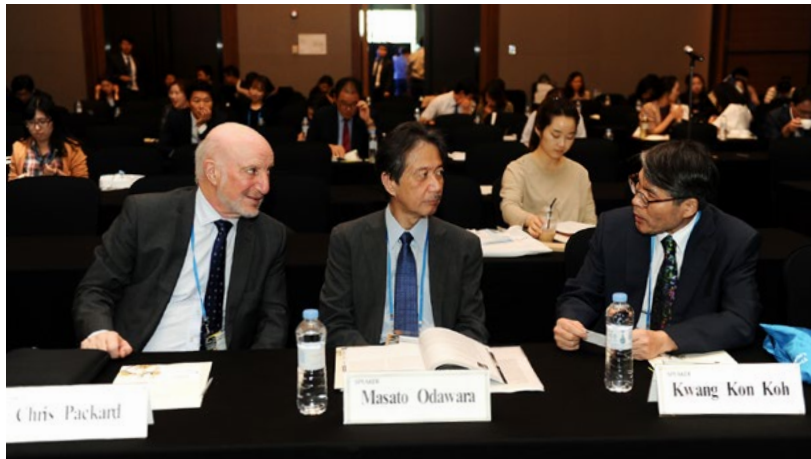


ICLA2016
등록데스크의 현장

ICLA2014



Welcome Dinner 당시 난타 공연



ICLA2015
해외 연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고광곤 교수의
모습



강의를 경청하는
참가자들과 당시
회장인 서홍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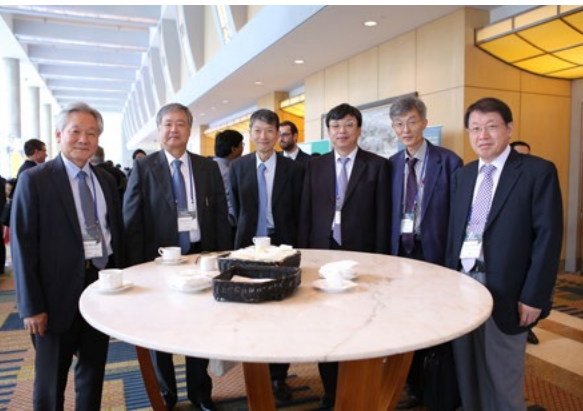


ICLA2013 Welcome Dinner 당시 모습

Welcome dinner에서 진행하였던 해외 초청 연사들을 위한 사물놀이 공연



왼쪽부터 박영배, 이홍규, 박정의, 김치정, 정익모, 채성철 교수



박영배, 서홍석 교수가 담소를 나누는 모습



ICLA2012 당시 강연 및 현장 스냅사진들

역대 학술대회 (2001년 통합 이후)

학술대회명	일시	장소
제2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1. 03. 09(금) - 10(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
제22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 09. 14(금) - 15(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로즈룸, 그랜드볼룸
제23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2. 03. 08(금) - 09(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제24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02. 09. 06(금) - 07(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로즈룸, 오키드룸
제25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3. 03. 07(금) - 08(토)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
제26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03. 09. 26(금) - 27(토)	신라호텔 영빈관
제27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2004. 04.15(목) - 16(금)	제주 롯데호텔
제28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04. 09. 04(토)	신라호텔 영빈관
제29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5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2005. 04. 14(목) - 16(토)	대구 인터볼고호텔
제30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05. 09. 09(금) - 10(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
제5차 아시아·태평양 동맥경화 및 혈관질환학회 학술대회(APSVD) & 제3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6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2006. 04. 12(수) - 15(토)	ICC JEJU(제주 컨벤션 센터)
제32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06. 09. 15(금) - 16(토)	신라호텔 영빈관
제33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07. 04. 21(토)	부산 벅스코
제34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 09. 14(금) - 15(토)	신라호텔 영빈관
제35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08. 04. 18(금)	부산 벅스코
제36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 09. 05(금) - 06(토)	그랜드 힐튼호텔 Convention Center 3층
제37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09. 04. 17(금)	대구 엑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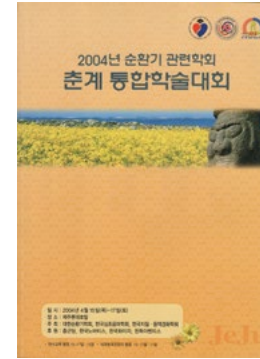
학술대회

학술대회명	일시	장소
제38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 09. 04(금) - 05(토)	그랜드 힐튼호텔 Convention Center 3층
제39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10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10. 04. 16(금)	부산 벅스코
제40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10. 09. 10(금) - 11(토)	일산 킨텍스 3층
제4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11. 04. 15(금)	부산 벅스코
201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하계심포지움	2011. 07. 16(토)	메이필드호텔 B1 오키드룸
제42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09. 02(금) - 03(토)	그랜드 힐튼호텔 Convention Center 3층
제43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12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12. 04. 20(금)	부산 벅스코
The 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ICLA 2012) & The 44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2012. 09. 14(금) - 15(토)	그랜드 힐튼호텔 Convention Center 3층
제45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13. 04. 19(금)	그랜드 힐튼호텔 Convention Center
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bdominal Obesity (ICAO 2013) 2nd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제46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2013. 09. 14(금) - 15(토)	그랜드 힐튼호텔 Convention Center
제47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14. 04. 18(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The 3rd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ICLA 2014) - The 48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2014. 09. 12(금) - 13(토)	그랜드 힐튼호텔 Convention Center
제49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15. 04. 17(금)	부산 벅스코
The 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ICLA 2015) - The 50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2015. 09. 11(금) - 12(토)	콘래드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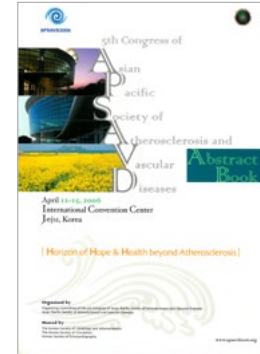
학술대회

학술대회명	일시	장소
제5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2016. 04. 15(금)	경주HICO
The 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ICLA 2016) & The 52nd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2016. 09. 09(금) - 10(토)	콘래드서울호텔
제 53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2017. 04. 21(금)	경주HICO
The 6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ICoLA 2017) - The 54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2017. 09. 08(금) - 09(토)	콘래드서울호텔
제55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2018. 04. 20(금)	대전컨벤션센터(DCC)
The 7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ICoLA 2018) - The 56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2018. 08. 31(금) - 09. 01(토)	콘래드서울호텔
2019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교육프로그램 (EAS Advanced Course in Lipidology)	2019. 04. 19(금)	부산벡스코
제57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2019. 04. 20(토)	부산벡스코
The 8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ICoLA 2019) - The 58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2019. 09. 05(목) - 07(토)	콘래드서울호텔
제59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20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2020. 07. 03(금)	경주HICO
21st International Vascular Biology Meeting (IVBM 2020) in conjunction with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and Atherosclerosis (ICoLA) & the 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Vascular Biology and Medicine (KVBM)	2020. 09. 09(수) - 12(토)	Virtual Meeting
제6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2021. 04. 16(금) - 17(토)	Virtual Conference
The 8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ICoLA 2021) - The 62nd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2021. 09. 10(금) - 11(토)	Hybrid Meeting

학술대회 포스터



제27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04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제5차 APSAVD & 제3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06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제34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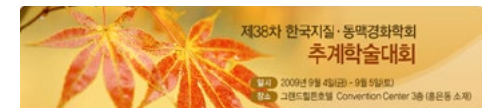
제29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05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제33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07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제37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09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제38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제39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10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학술대회 포스터



제40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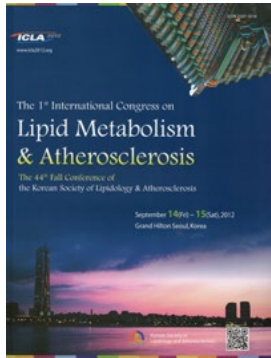
제4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11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제42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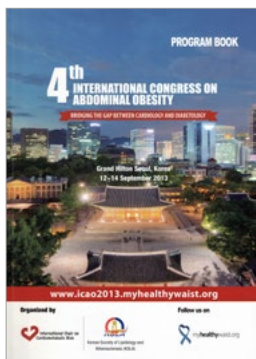
제43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12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The 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ICLA 2012) & The 44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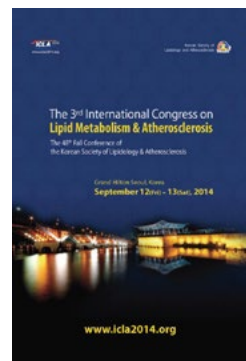
제45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13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bdominal Obesity (ICAO 2013)
2nd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제46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추계학술대회



제47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14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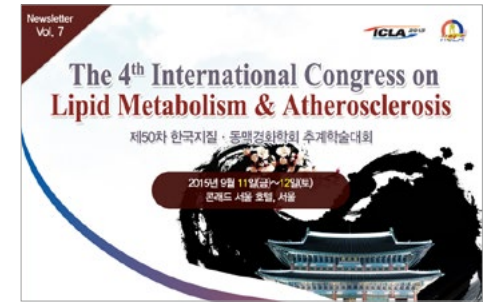


The 3rd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ICLA 2014) - The 48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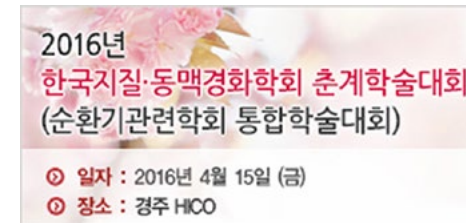
학술대회 포스터



제49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15년 순환기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The 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ICLA 2015) - The 50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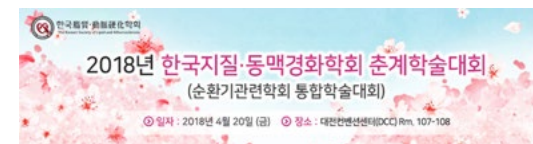
제5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16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제53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17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The 6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ICoLA 2017) - The 54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제55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18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The 7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ICoLA 2018) - The 56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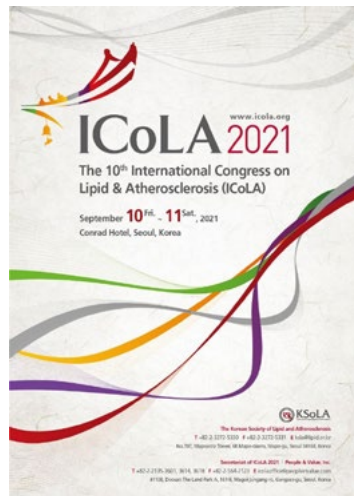
제57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19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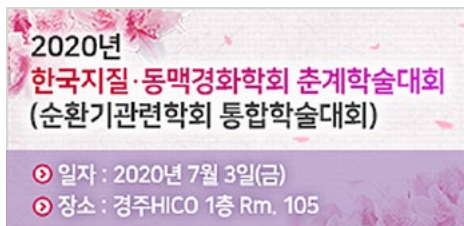
21st International Vascular Biology Meeting (IVBM 2020) in conjunction with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and Atherosclerosis (ICoLA) & the 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Vascular Biology and Medicine (KVBM)



The 8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ICoLA 2019) - The 58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The 8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 Atherosclerosis (ICoLA 2021) - The 62nd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 & Atherosclerosis



제59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20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제61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21년 춘계 심혈관 통합학술대회)

해외 유관학회 MOU 체결

2000년 아시아태평양 동맥경화 및 혈관질환학회(The Asian-Pacific Society of Atherosclerosis and Vascular Disease), 2004년 국제동맥경화학회(International Atherosclerosis Society)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폭을 넓혔다. 이후 각종 국제학회와 MOU를 체결하여 지질·동맥경화 및 관련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국제적으로 교환하고 국내 연구 발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MOU 체결한 학회 리스트



EAS

European Atherosclerosis Society



APSAVD

The Asian-Pacific Society of Atherosclerosis and Vascular Disease



JAS

The Japan Atherosclerosis Society



TSLA

The Taiw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TAS

The Thai Atherosclerosis Society



MSA

The Malaysian Society of Atheroscler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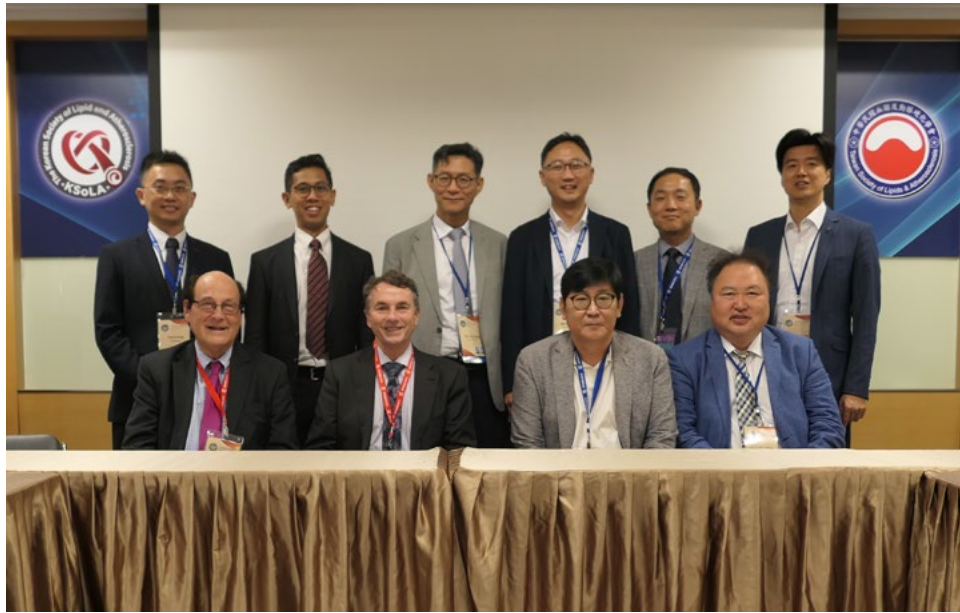
CSATB

Canadian Society of Ather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Thrombosis



SHVM

Society for Heart and Vascular Metabolism



2019 KSoLA-APSAVD MOU 체결 당시 대만을 방문했던 박종열 당시 이사장, 김성래, 송기호, 이우제, 박철영, 유성훈 교수와 APSAVD 관계자들



2019년 EAS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최 당시 현장에서 초청연사, 패널 및 EAS 관계자들

시상제도



학술상

지질·동맥경화 학문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학문발전에 탁월한 공헌이 인정되는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진학술연구비

젊은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수연제상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 대회에서 연제 발표를 장려하여 학회 연구 활동 및 학술 대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JLA 상

JLA에 논문 게재를 장려하여 학회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시 '우수논문상'으로 시작하였으나 JLA 발전 독려를 위해 'JLA 상'으로 개정했다.

- 2002년 (학술상)** 김태웅(강원대 생화학과), 박경수(서울의대 내분비내과)
- 2002년 (우수논문상)** 고광곤(가천의대 심장내과), 박종열(울산의대 내과)
- 2008년 (우수자유연제상)** The Best Research Award 권유욱, 박성희, 박종길, 임은정, 정인혁, 정혜정, 조영진, 조현주, 최진용, 현예정
Clinical/Basic Research Award 강원유, 고광곤, 김노수, 김백경, 김병진, 김소현, 김주영, 박미영, 박선훈, 안소진, 양우인, 원종철, 이원재, 임수, 홍영준
- 2009년 (우수자유연제상)** The Best Research Award 김오연, 나문희, 박기훈, 박성희, 이민구, 이철환, 위진, 정인혁, 조재영, 한종민
Clinical Research Award 권용주, 김종범, 박미현, 박성희, 우종신, 윤경호, 윤지숙, 이상학, 조정선, 한수경
Basic Research Award 김용숙, 김혁, 박기훈, 정세진, 제세영, 하상진
- 2010년 (우수자유연제상)** The Best Research Award 김계훈, 김용숙, 박예민, 박현대, 백인경, 오세희, 조성우, 한수경
Clinical Research Award 나진오, 류시현, 박미연, 설수영, 오미숙, 이해영, 하상진, 홍영준
Basic Research Award 기해진, 김오연, 김은주, 김형규, 박기훈, 박대성, 장양주, 진서리
- 2011년 (우수자유연제상)** The Best Research Award 기해진, 양한모
Clinical Research Award 고광곤, 이은영, 최문영, 홍영준, 홍은실, 홍정희
Basic Research Award 김오연, 김재룡, 손연경, 안병용, 정인혁, 진서리

- 2012년 (우수자유연제상)** The Best Clinical Research Award 기해진, 서미혜, 이주명
The Best Basic Research Award 박종길, 손연경, 이태구
- 2014년 (우수자유연제상)** The Best Research Award 김민주, 정세진
Best Presentation Award 김민경, 김성민, 김형규, 이미란, 이상언, 이승현, 전기현, 지미선, 최승희
- 2015년 (우수자유연제상)** The Best Research Award 기해진, Fatiha Tabet
Best Presentation Award 공성혜, 김재용, 김지현, 김학령, 오재원, 윤소라, 이막순, 전세진, 정은선, 황환진
- 2016년 (우수자유연제상)** The Best Research Award Koji Ohashi, Peter Psaltis
Best Presentation Award 고나영, 송주현, 이치호, Ismail Sergin, Robert Raffai, Sune Fallgaard Nielsen, Sunaina Gautam, Tomohisa Nakamura
- 2017년 (우수자유연제상)** Best Presentation Award 강헌중, 고승빈, 김숙정, 김용숙, 안효숙, 이윤정, 이진우, 전세진, 황인창, Anne Langsted, Hayato Ogawa, Neha Atale, Teena Bhakuni
- 2018년 (우수자유연제상)** Best Oral Presentation Award 김정민, 김학령, 문인기, 이찬주, Fatiha Tabet, Jesse Williams, Naoya Otaka, Pey Sze Teo, Sihan Song
Best Poster Presentation Award 기해진, 이진우, 정미향, 조향희, 최수연, Awanish Upadhyay, Jing Jin, Mohamad Arif Fikri, Shota Kumazaki
- 2018년 (최우수논문상)** 정명호(전남의대 순환기내과)

- 2018년 (우수논문상)** 문민경(서울의대 내분비내과), 박근규(경북의대 내과학교실), 이명숙(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 2019년 (우수자유연제상)** Best Oral Presentation Award 성혜경
Best Poster Presentation Award 김준오
Outstanding Oral Presentation Award 안용주, 홍상모, Anand Krishna Singh
Outstanding Poster Presentation Award 김재완, Henkie Isahwan
- 2019년 (최우수논문상)** 김영국(전남의대 생화학교실)
- 2019년 (우수논문상)** 김정민(서울의대 신경과), 배지철(성균관의대 내분비내과), 손장원(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우창훈(영남의대 약리학교실), 이상학(연세의대 심장내과), 장양수(연세의대 심장내과), 정명호(전남의대 순환기내과), 지선하(연세대 보건대학원)
- 2020년 (학술상)** 정명호(전남의대 순환기내과)
- 2020 (신진학술연구비)** 김범준(울산의대 신경과), 김영국(전남의대 생화학교실)
- 2020년 (우수자유연제상)** Best E-Poster Award 김경수, 김학령, 박훈준, 신다솜, Ayon Ibrahim
- 2020년 (최우수논문상)** 김정선(국립암센터 암의생명과학과)

- 2020년 (우수논문상)** 고관표(제주의대 내분비내과), 김재호(부산의대 생리학교실), 박용식(경희대 미생물학교실), 박태식(가천대 생명과학과), 이상학(연세의대 심장내과), 이용호(연세의대 내분비내과), 조상호(한림의대 순환기내과), 최근주(중앙의대 마취통증의학과), Linda R. Peterson(Washington University, USA)
- 2021년 (학술상)** 오구택(이화여대 생명과학과)
- 2021년(신진학술연구비)** 허지혜(한림의대 내분비내과)
- 2021년 (우수자유연제상)** Best Oral Presentation Award Adil Rasheed
Best E-Poster Presentation Award 기해진, 박지현, 박지혜, 이찬주, Mai Kakimoto
Outstanding Oral Presentation Award 구보경, 문신혜, 안수진, 이유빈, 조윤경
Outstanding E-Poster Presentation Award 김경수, 김시내, 김영국, 류혜진, 전지은, 한인희, 황윤진, Arif Tasleem Jan, Diem Thi Ngoc Huynh, Javad Alizargar
- 2021년 (우수논문상)** 강규태(덕성여대 약리학교실), 김남훈(고려의대 내분비내과), 김필한(카이스트 나노과학기술대학원), 김현창(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경우(서울의대 순환기내과), 한진(인제의대 생리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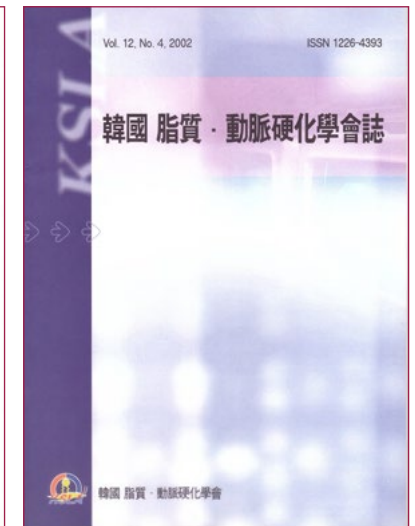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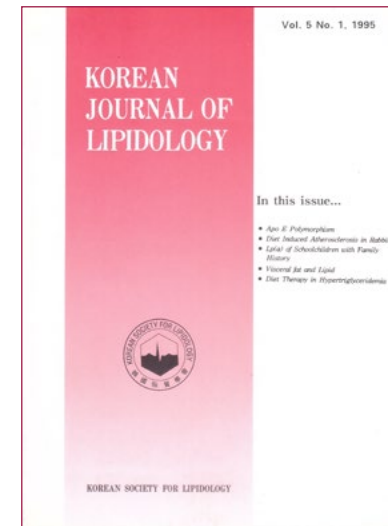
International Journal

역경 속에 자란 나무,
공식학회지 JLA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학회가 학술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꼭 점검해야 하는 것이 학회지다.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회지를 발간해야 하고, 발간된 학회지는 학회의 학술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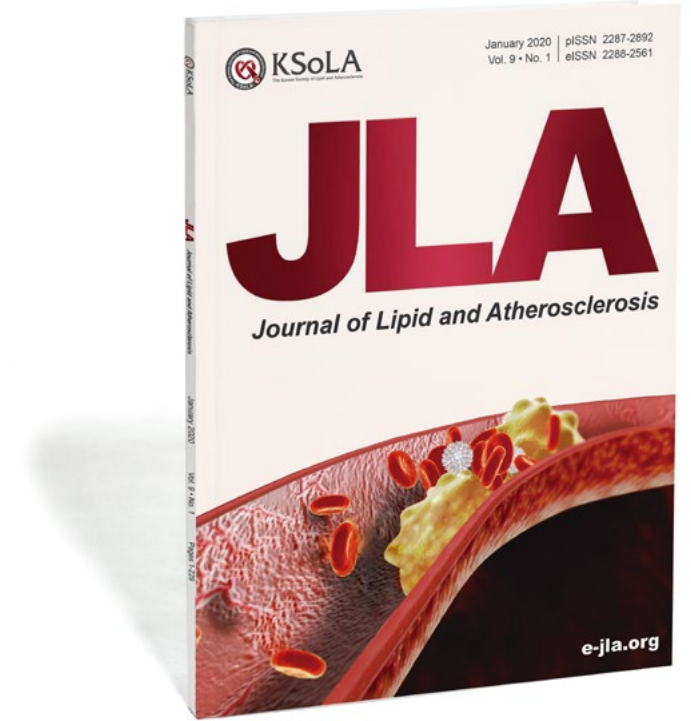
우리 학회도 학회 출범과 동시에 학회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했다. 1991년부터 「한국지질학회지」로, 2001년부터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라는 이름으로 발간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게재논문 부족으로 인해 정시발간이 어려워졌고, 이 어려움은 2010년까지 이어졌다. 그렇다 해도 학회가 존재하는 이상 학회지 발간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학회의 존속 평가를 위해 2010년 9월 KCJ(대한심장학회지) 학회지로 통합을 결정했다. 대한심장학회와는 아시아태평양 동맥경화·혈관질환학회(APSVD)도 함께 개최했다. 우리 학회가 사무실이 없었을 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던 학회라 여러모로 친분이 있었다. 그러나 ‘통합’이란 단어가 조금 부끄러웠다. 그저 KCJ에서 우리 몫으로 지면을 할애해준 격이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사무실에서 우리 학회에 책상 하나를 빌려주고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 | | | |
|---|---|--------------------|
| 1 | 2 | 1995년 한국지질학회지 |
| 3 | 4 | 2002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
| | | 2012년 JLA 1권 1호 |
| | | 2018년 JLA 7권 1호 |

우선 그렇게 급한 불은 껐지만 KCJ의 책상을 빌리는 우리는 마음 편할 리 없었다. 거기서 만족하며 머무를 수도 없었다. 우리는 계속 도전하기로 했다. KCJ의 지면을 함께 사용하면서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를 독자적으로 계속 발간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대한심장학회에서 시정 관련 공문을 보내왔다. 또 하나의 위기였다. 결국 논의 끝에 2011년 12월호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는 폐간하기로 결정했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던가? 그러던 중 2012년 6월부터 지금의 학회지 JLA(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를 창간하기로 한 것.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다. 대책도 없이 무작정 사무실을 구하러 다니는 셈이었고, 논문 하나 가지고 학회지를 만들겠다는 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씨앗 하나를 심기로 했다. 정성껏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한 후에도 싹이 자라지 않으면 그 때 가서 실망하면 될 일. 싹이 자라기를 바라며 심은 씨앗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싹이 빨리 돌아났다. JLA가 2013년 6월 KoreaMed 등재된 것이다. 2015년부터는 대한내과학회의 내과전문의시험을 위한 논문 학술지로의 자격을 인정받았고, 2017년 KCI(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등재후보 학술지가 되었다.

하지만 고민거리는 남아 있었다. JLA는 국문지의 형태였고, 여전히 KCJ(대한심장학회지)가 우리 학회의 영문지로 여겨졌다. 이제 정말 학회지의 독립을 꾀할 때가 된 것. 책상 몇 개는 마련되었고, 이제 도전은 무모함을 벗어나 혁신을 향하고 있었다. 드디어 2018년 6월, KCJ로부터 독립을 결정하여 전자저널로 전향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영문판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KCI, Scopus, Pubmed Central 등재가 되면서 국제적인 학회에 걸맞게 국제적인 학회지로 잘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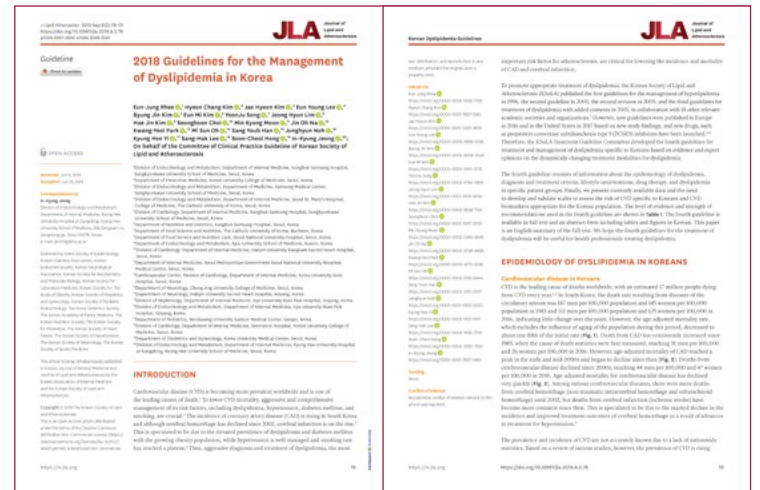


JLA는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표지 및 게재 논문을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좌), 홈페이지(우) 메인 화면(<https://www.e-jla.org/>)

JLA는 지질 및 죽상 동맥경화증의 기초 및 임상 연구를 다룬다. 또한 혈관생물학, 혈전증, 신진대사, 영양 또는 심혈관 건강의 광범위한 측면에 대한 논문을 권장한다. JLA는 이상지질혈증과 죽상경화증의 병인 기전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통찰력을 높인다. 그리하여 심혈관질환의 정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간행위원회는 JLA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피인용지수를 높여 'SCIE'에 등재하고,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관찰한 것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논문이다. 학회지는 그 논문을 싣고, 회원들에게 전달해 지식을 교류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학회지는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학회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학회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실질적 통로이기도 하다. 신진회원들에게 가입 동기를 물으면 학회지를 끄는 경우가 꽤 많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가 쏟아지는 터라 더욱 오피셜한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전문가도 헛갈리게 하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학회지의 역할이 되었다. 학회지는 이렇듯 중요한 지점에서 있다. 그러니 만드는 과정이 쉬울 리 없다. 하지만 JLA가 역경 속에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고,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 간행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JLA를 사랑하고 잘 보살펴야 한다. 작물을 키우는 농부의 마음처럼 항상 점검하고 관찰해서 앞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JLA가 SCIE에 등재되고 세계적인 학술지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 곧 다가올 미래이니까.

JLA의 판권(상단)과
게재논문의 일부(중간),
투고규정(하단)



Guideline & Fact Sheets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다시 심은 씨앗,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과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

콜레스테롤은 피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한다. 총 콜레스테롤 200mg/dL 이하, LDL 130mg/dL 이하, HDL 60mg/dL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하일 때 정상 범위로 본다. 정상 범위에서 총 콜레스테롤 또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고콜레스테롤증, HDL 콜레스테롤이 낮을 때 저HDL콜레스테롤혈증, 중성지방이 높을 때 고중성지방혈증이라 하며, 혈중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포함한 지질이 증가된 상태를 고지혈증이라 진단한다. 그리고 이들 전체를 묶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한다.

심혈관계질환은 선진국병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기저가 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의 가장 중요한 유발인자가 이상지질혈증이다. 이상지질혈증은 생활습관 악화와 혈중 지질농도 증기가 중요한 원인이다. 바꾸어 말하면 심혈관계질환 발생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 혈중 지질농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언급한 증상에 맞는 치료지침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은 한국인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기존에 알려진 방법이 이상지질혈증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거의 모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다. 그 결과 중 일부는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또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2014년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정 워크숍

당시 좌장을 맡은 채성철, 김치정 교수



각 분야에서 패널로 참석하여 치료지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4년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정 공청회



2018년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개정 공청회



발표 중인 김병진 교수



폐회사를 하고 있는 김효수 당시 이사장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맞는 치료지침은 무엇일까. 먼저 한국인에게 있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했다. 적합한 치료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환자에게 향후 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사망할 위험도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구 집단에서 위험 인자들을 정확히 측정하고,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확히 진단이 가능한 심혈관계질환과 이로 인한 사망 빈도를 분석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미 발표된 몇 개의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위의 요소들을 갖추지 못해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우리 학회가 나서서 치료지침을 만들어야 했다. 해외에서 발표된 자료들도 많지 않았고, 참고로 삼을 만한 국내자료도 없었다. 또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시 무모함은 도전이 되고, 도전은 혁신이 되리라 믿으며.

먼저 유관 학회들과 협력하여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씨앗으로 삼았다. 치료지침은 질병의 진료 가이드를 기술한 것이다. 하나의 질병에 치료지침이 다양하면 혼선만 안겨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유관학회를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996년 고지혈증 치료지침 제1판이 발행되었고, 대한민국 콜레스테롤에 관한 치료지침은 그것이 유일했다. 이 발간은 한국인에게 적용할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이 최초로 공표된 감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7년 뒤인 2003년 제2판을 발행했다. 2판을 통해 한국에서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이상지질혈증을 치료지침을 널리 인식시킬 수 있었다. 높은 콜레스테롤을 방치하면 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치료 인식개선을 도왔다.



- | | | |
|---|---|---|
| 1 | 2 | 3 |
| 4 | 5 | 6 |
1. 1996년 고지혈증 치료지침 제1판
 2. 2002년 고지혈증 치료지침 결정을 위한 심포지움
 3. 2003년 고지혈증 치료지침 제2판
 4. 2009년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2판 수정보완판
 5. 2015년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3판
 6. 2018년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4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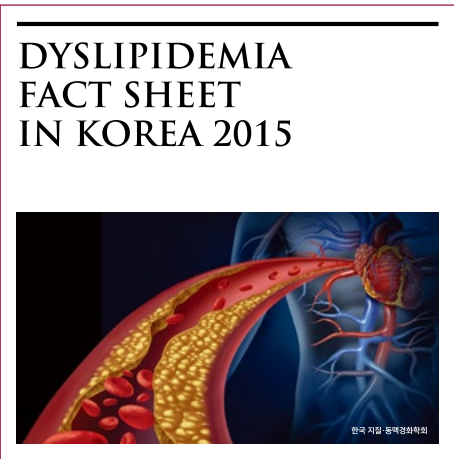
- | | |
|---|---|
| 6 | 7 |
|---|---|
6. 2010년 스타틴 임상연구의 근거
 7. 2010년 심혈관계 질환의 영양치료지침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치료지침의 개정이 발표되어 이를 수렴해 제1판 발행 후 10년 만인 2014년도에 제3판을 발간하였다. 3판은 더욱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넣고, 식사패턴까지 추가하여 더욱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 세계적으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신약이 개발되고, 대규모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는 사례가 나와 2018년도 제4판을 발행하였고, 현재 2022년 제5판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치료지침은 요약본과 전체본이 함께 발간되었고,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4판에 걸쳐 발간된 치료지침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예방효과를 관찰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구 대상이었던 환자군에서 일반적으로 예방효과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개개인의 지질대사 이상을 치료할 때 무조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해 환자화 의견을 조율하고, 치료자의 임상적 판단에 근거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치료의 기준이 되는 치료지침은 질병을 알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다. 우리 학회는 역동적으로 변하는 이상지질혈증 치료법에 대한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치료법을 정립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를 고스란히 담아 새로운 '치료지침'을 발간하고 개정하여 국내 의료진에게 발빠르게 소개할 것이다.

더불어 2015년부터는 국내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현황을 담은 팩트시트(Dyslipidemia Fact Sheets in Korea)를 발행하였다. 팩트시트에는 우리나라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및 관리 현황을 총망라해 실었다. 국내 이상지질혈증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진료와 연구에 도움을 주려면 치료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로 팩트시트를 발행한 것이다. 현재 2022년 팩트시트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 1 2 1. Dyslipidemia Fact Sheet in Korea 2015
- 2 2 2. Dyslipidemia Fact Sheets in Korea 2018
- 3 3 3. Dyslipidemia Fact Sheets in Korea 2020

3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사업

KSoLA
Healthful Arteries, Hopeful Future

2021
2001-2021

Policies for Patients

환자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다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우리 학회의 1차 목표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일반인들이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알고 예방하도록 돕는 일이다. 아무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대체 무엇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소용없다.

우리는 환자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환자는 곧 우리와 같은 이 나라의 국민이다.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자 우리 자신과 학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첫 번째 노력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파트너라는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그래서 바뀐 정책도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꼭 바뀌어야 하는 정책도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고혈압, 당뇨병은 인지도도 높고 폭넓은 약제비 급여가 인정되었지만 이상지질혈증은 그렇지 않았다. 심혈관계 질환자의 경우 당뇨병, 고혈압 등 합병증을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탓에 불가피하게 종합병원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경증질환 분류로 인해 약값 50%를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유관학회와 논의를 통해 치료지침에 근거한 만성질환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이상지질혈증이 법정관리질환에 포함되었고, 환자들은 약값 부담을 덜 수 있었다.



2015년 9월 12일
토요일자 14면,
생활경제·
헬스케어면

**파이낸셜
뉴스**

2015년 09월 12일 토요일 014면 생활경제

60代 여성 3명 중 1명은 이상지질혈증 환자

동일연령 男 5명 중 1명꼴 30세 이상 절반 질환 앓아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절반 가량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절반(47.8%)인 약 1600만명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는 10명 중 6명(57.6%), 여자는 10명 중 4명(38.3%)에 해당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상지질혈증은 증가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50대 이후에 급증했다.

고L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

방혈증 및 저HDL콜레스테롤혈증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상지질혈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약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2003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또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고LDL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질환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는데 연령에 따라 증가해 60대 이상 성인에서 남자는 5명 중 1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 해당했다.

고중성지방혈증과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특히 30대 남성은 같은 나이에 여성에 비해 고중성지방혈증이 4배 많았다.

또 정상 체중 범위에서도 3명 중 1명이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며 체질량지수 기준으로 비만하면 절반 이상이,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는 3명 중 2명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다.

만성질환자들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뇨병 환자 4명 중 3명이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며 LDL콜레스테롤 100mg/dL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명 중 9명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됐다.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으며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이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현재는 이상지질혈증 검사주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주기는 원래 2년이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4년으로 늘어났다. 이상지질혈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많아지는 추세임에도 검사주기가 늘어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주기를 좁히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2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었다. 결국 우리 학회는 간담회를 열어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최동훈 이사장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에 이르며, 이미 20대 인구의 5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검진이 기존 2년에서 2018년부터 4년으로 길어져 질환 및 합병증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 2년마다 하는 국가검진의 혈압, 혈당 검사와 함께 지질 검사도 다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역행하는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40% 시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공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간담회 개최. 왼쪽부터 윤종찬, 이해영, 김종화 교수, 이진한 의학기자, 최동훈 이사장, 신현영 국회의원, 고희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김대중, 최성희 교수가 참여했다.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38.4%

20세 이상 성인

**적극적인
지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
정책적 관심 촉구**

김대중 기획이사는 ‘국내 이상지질혈증 진단 및 치료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선제적인 이상지질혈증 관리와 그에 대한 국민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혈압과 혈당이 높은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경우 급성질환으로 번질 위험이 7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더욱 선제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며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우리 학회는 국회의원 간담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언론을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앞으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것은 우리 학회를 위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결국 국민을 위한 배려라는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과연 경증 질환인가?”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 개최 당시 현장



아무리 전문가들끼리 모여 중요한 연구를 하고, 국제적인 치료지침에 등재될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연구를 목표로 하고 싶지 않다. 일반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이 가능해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 학회는 정책을 제시하고 건의할 뿐 아니라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 ‘Guidelines for Lipid and Atherosclerosis Management (GLAM)’과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FH) 등록사업, ‘콜레스테롤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지하철 내부 광고 개첨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Healthy Arteries,
Hopeful Future
동맥을 더 건강하게,
미래를 더 희망차게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증이 공금하시다면
지질·동맥경화 전문가들이 모인 공식 학회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학회 일반인 공간 교육 영상

www.lipid.or.kr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증이 공금하시다면
지질·동맥경화 전문가들이 모인 공식 학회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www.lipid.or.kr

Healthy Arteries,
Hopeful Future

동맥을 더 건강하게,
미래를 더 희망차게

무엇이 공금하신가요?
• 이상지질혈증이 무엇인가요?
•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필요한 식생활
• 동맥경화의 증상과 예방관리

학회 일반인 공간 교육 영상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는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홍보명함 제작



2016년 대국민 홍보 캠페인
TBS 라디오 방송 녹음현장, 박경수 당시 이사장



2019년 지하철 역사 광고 개첨

나쁜 콜레스테롤 LDL-C

피할 수 있는 심근경색,
나쁜 콜레스테롤을 관리해 잡으세요!

LDL 콜레스테롤 관리,
심혈관질환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심혈관질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www.lipid.or.kr 정문에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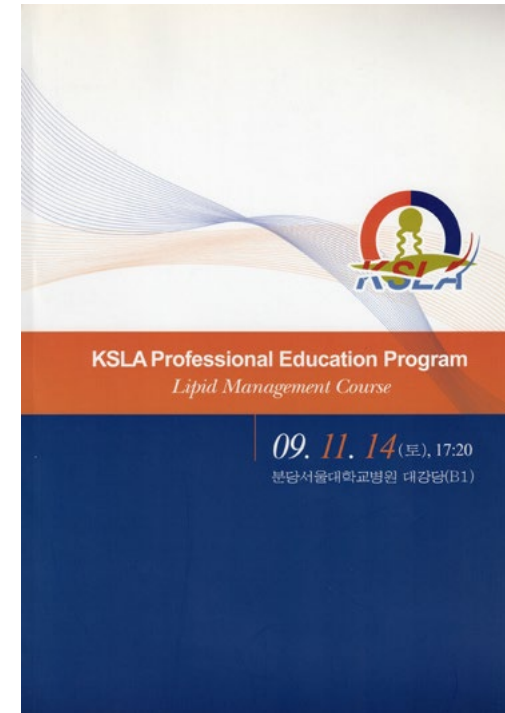
2021년 대국민 홍보 캠페인
TBS 라디오 방송 녹음현장,
최동훈 이사장

이상지질혈증을 가르치는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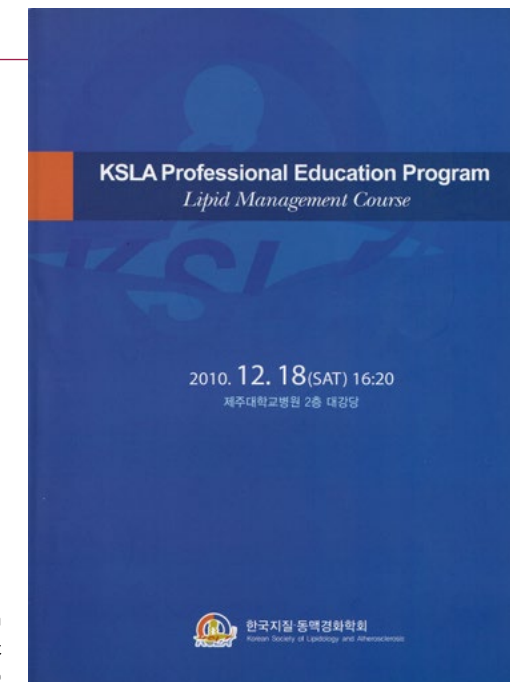


16차 GLAM 연수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위해 진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질대사의 기본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대학 및 대학병원 봉직의뿐 아니라 개원가에서 근무하는 진료의들에게도 참여를 유도해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진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 ‘KSo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이란 이름으로, 2009년~2014년까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을 교육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Guidelines for Lipid and Atherosclerosis Management (GLAM)으로 이름을 바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최하고 있다.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Lipid Management Course 2009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Lipid Management Course 2010

또한, 2021년 12월 4일에는 처음으로 제1회 A to Z(Atherosclerosis to Zero, ASCVD to Zero)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루종일 진행된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죽상동맥경화증, 이상지질혈증 및 심뇌혈관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COVID-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으며, 유익한 지식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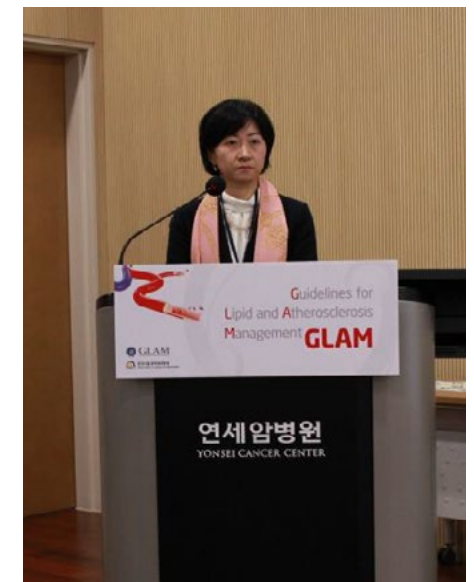
강의 현장 및 조익성, 정인경 교수의 강의 모습



2019년 11차 GLAM



왼쪽부터 이용호, 주형준, 이상학, 한기훈 교수가 강의 후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FH) 등록사업

1 500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지질대사 관련)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FH)은 부모에게서 지질대사와 관련된 비정상 유전자를 물려받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질환으로 유병률은 1/500로 알려져 있다. FH 환자는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하게 지질강하치료를 할 경우 상당부분에서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율과 치료목표 달성이 높지는 않다. FH 연구를 먼저 시작한 선진국에서는 FH proband와 그 가족을 스크리닝하여 FH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FH 진단과 치료를 증진하기 위한, 그 빈도와 특징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흡했다. 국내 FH 환자의 임상적 진단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환자 특성에 대한 연구는 환자의 진단율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환자의 특성을 연구하려면 먼저 FH 환자현황과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등록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FH 등록사업'을 시작한 배경이다.

FH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학교수의 사회로 시작하여(왼쪽), 이찬주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2018 FH 심포지움 개최 당시 모습. 박경수, 김명아 교수를 비롯한 초청 연사 및 패널

2018 FH 심포지움



2018 FH 심포지움 행사 안내 포스터

FH 등록사업은 2008년부터 전국 16개 대학병원을 거점으로 진단사업을 벌이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았다. 2015년 12월부터 2기 등록사업을 시작해 2018년 5월에는 FH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열어 '대국민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한 자료가 축적되었고, 여러 편의 논문이 출간되어 FH 환자를 위한 진료지침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콜레스테롤의 날

매년
9월 4일

2005년 제1회
콜레스테롤의날 행사
리플렛



현장에서 일반인 대상
무료 검진 및
건강 상담을
진행 중인 모습



2014 콜레스테롤의 날

생활습관병(성인병)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한 날이며, 날짜는 매년 9월 4일이다. 전문 의료진이 환자와 환자의 가족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바로 알리는 교육행사를 진행한다. 무료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기도 하며, 공개강좌, 공익광고, 방송을 통해 시민의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의 날’로 이름을 바꿔서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동맥경화와 대사증후군에 대한 정보도 전달했다. 2016년에는 ‘건강한 혈관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외에 이상지질혈증 건강강좌 및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건강한 혈관 만들기 5계명을 발표했다.

2017-2018년에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기존 일반시민 대상에서 의료인 홍보로 방향성을 바꾸고 콜레스테롤 주간에 ‘건강한 혈관 만들기 캠페인’ 타이틀로 각 병원 내 강좌를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콜레스테롤 주간 기간에 맞추어 TBS 공익광고, 지하철광고 등을 진행했다. 2019년에는 9월 23일-27일을 ‘콜레스테롤 주간’으로 정하여 전문의료진이 시민교육 행사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

건강한 혈관 만들기 5계명

1.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DL 콜레스테롤이 부족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중성지방이 높아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2.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 소고기, 돼지고기에 있는 동물성 기름과 버터, 쇼트닝 등 포화지방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급적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조리법이 좋으며, 등푸른생선 등 불포화지방산을 적절히 섭취합니다.
-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하고, 가급적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육류 이외에 생선 등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3. 절주와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잦은 음주는 이상지질혈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술은 하루 2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흡연은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 위험인자의 하나로 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 금연이 필요합니다.

4. 하루 30분, 주 4회 이상 운동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낮고,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5. 이상지질혈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 이상지질혈증은 생활습관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상지질혈증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의 날 행사

제1회 콜레스테롤의 날

일시 및 장소 : 2005년 9월 4일
올림픽공원 내

제2회 콜레스테롤의 날

일시 및 장소 : 2006년 10월 21일
향군회관 2층 대강당

2011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의 날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25일
관악구청 8층 대강당

2012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의 날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13일
한림대성심병원 4층 한마음홀

2013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의 날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19일
장충단공원

2014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의 날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7일
장충단공원

2015 콜레스테롤 주간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6일~ 9월 13일
홍보자료 주요 병원에 배부

2016 건강한 혈관 만들기 캠페인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1층 제2임상강의실

2019 콜레스테롤 주간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23일 ~ 9월 27일
10여 개의 대학병원



제2회 콜레스테롤의 날 안내 리플렛



2012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의 날 포스터



2013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의 날 포스터

2014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의 날 포스터

4

FOR THE FUTURE

학회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

KSoLA
Healthful Arteries, Hopeful Future

2021
2001-2021

Look Forward to the Future

미래를 바라보며

20년사를 작업하며 그동안 우리 학회에 애정을 담고 열정을 바친 임원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 학회의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진행한 일이었다. 이 지면을 빌려 인터뷰에 응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인터뷰에 응하진 못하였지만 20년사를 응원하고, 지켜봐준 임원들과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이제 우리 학회는 어느덧 20년의 길을 걸어온 중견학회가 되었다. 신진 연구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20년을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신입생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지나간 길을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 몸을 돌려 앞을 바라보고자 한다. 인터뷰를 통해 들은 임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과연 앞으로의 20년은 어떤 모습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보자.



학회 통합 20주년 기념식에서. 왼쪽부터 박정의, 최영길, 이홍규 교수가 무대에서 20주년 홀로그램 영상을 시연 중에 있다.

영원한 학생이 되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기를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학회에서 노벨상 타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회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원천적인 학문을 연구하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모두 영원한 학생이 되면 좋겠어요.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 때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가 인도였어요. 인도에서 많은 걸 들여왔죠.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인도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영원한 학생이 되겠다'는 마음이었죠. 나도 그래요.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연구나 지침에 머물지 말고, 계속 새로운 연구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해요.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1990-1992년 한국지질학회 1대 회장
최영길 교수



전체를 보는 균형 감각을 잃지 말자

지금 우리나라 의학도 여기저기 쳐다보면 아주 작은 분야의 전문가가 엄청 많아요. 한 분 한 분 보면 그 분야에선 다 세계적인 대가예요. 그런데 그건 남이 보는 시선이고, 자신을 보는 시선은 거기서 조금 벗어나야 해요. 사람 전체를 봐야 하죠. 전문화된 분야를 다시 통합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내가 영양전문가이면 식사나 영양을 균형 있게 하면 병이 다 치료될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먹는 걸로 다 해결 안 돼요.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약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약물을 다 쓰면 해결할 것처럼 말하지만 약물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지질·동맥경화 하는 우리들은 혈관만 깨끗하면 사람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사람 전체를 봐야 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분야를 매일 보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제 눈을 들어야 해요. 인간 전체를 보고 균형 있는 감각으로 넓게 보자고요. 그 감각을 잃으면 안돼요.



학회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훌륭하게 발전하기를

나는 20년 동안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이면 정말 빠른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20주년을 맞아 임원들이 계획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하는 것도 발전이고요.
후배들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죠. 20주년을 맞아 선배들의 경험과
생각을 더 들을 수 있으니 잘 배워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비전도 설정하고, 더 훌륭하게 발전해가면 좋겠어요.

이제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이미 세계가 굉장히
국제화되어서 거의 한 지붕 안에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거든요.
후배들은 국제학술대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교수들과 교류해서 학회의 수준을 유럽이나 미국 정도로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유럽 학회에는 참여자가 거의 수천 명에
해당돼요. 참여하는 국가도 전 세계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많죠.
그런데 그거 우리라고 왜 못하겠어요? 내가 성장과정을 쫓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규모도 몇 십 배가 늘어나는 눈부신 발전을
했는 걸요.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교량 역할을 잘하는 학회이기를

우리 학회는 교량이에요.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을 열심히 연구하고 치료하잖아요. 치료하는 목적은 합병증 예방인데, 합병증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심혈관 합병증이에요. 또 심혈관 합병증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이죠. 고혈압도 환자가 사망하는 원인은 결국 동맥경화 같은 거예요. 비만도 그렇고요. 무척 많은 학회에서 지질과 동맥경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셈이고, 우리는 메이저 학회는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가운데에서 필요한 학회들을 연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량이잖아요. 한 건물은 아니라도 정말 중요한 역할 아니겠어요? 교량이 없으면 지역과 지역을, 건물과 건물을 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앞으로도 잘 해나가면 좋겠어요.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2004년 4대 회장
손호영 교수



학회를 사랑하는 임원이 많이 나오기를

내가 학회 임원 추천위원장이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사장하고 회장을 뽑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장인 거죠. 내가 비교적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오래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임원은 정말 학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원은 학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간도 들고 정성도 들고, 자기희생이 있어서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돼요. 본인의 희생으로 학회가 발전하지만 결국 리더십도 생기고, 회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를 배우니까 자신도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학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형평성 있게 임원을 선출하려고 분야별로 돌아가며 한다든가 하는 기준도 있지만 이제 정말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해요. 전통도 중요하고 지켜야 하지만 정말 학회를 사랑하는 임원이 나와야 앞으로의 20년이 좀 더 밝지 않겠어요?



우리만의 데이터와 연구가 많아지길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고 환자들에게 약을 줄 때 항상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 환자에게 좋은 걸까? 미국이나 유럽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약이 우리 환자에게도 적합할까? 그래서 나는 우리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코호트 연구를 하든 약을 줘서 약의 효과를 기록하든 우리만의 데이터를 뿜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연구도 많아지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거 우리 학회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급성심근경색연구회에서는 심근경색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요. 대한심부전학회도 케이스들을 모아서 논문도 쓰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요.

지금 인터뷰를 하고 기록하는 것도 우리만의 데이터죠. 역사 기록이잖아요. 역사는 지나온 길의 데이터가 쌓인 거고요. 나는 그래서 역사기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록이 앞으로의 학회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젊은 회원들이 오고 싶은 학회가 되기를

내가 학생 때 약리학 교수님께서 아시아 약리학회에 날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교수님이 가자고 하니깐 갔는데, 막상 가보니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학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열정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구나... 발표하는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날 데리고 가준 교수님께도 참 감사했구요.

나는 우리 학회가 그 교수님의 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젊은 회원들이나 임상 연구자들을 데리고 와야죠. 의과대학 학생이나 전공의는 첫해에 무료로 등록해준다던가, 이런 이벤트도 만들고, 우선 노출이 많이 되어야죠. 우리가 아무리 국제적 위상을 높여도 한국 학생이나 젊은 연구자들이 모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볼 수 있게 노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대에 맞게 고민하고 실행해야죠. 우선 오고 나면 내가 처음 학회를 교수님 따라 갔던 그날처럼 감사한 마음이 들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학회는 찾기 힘들거든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2015-2016년 8대 이사장
박경수 교수



끊임없는 정책 요구와 좋은 프로그램으로 승부하자

진료는 보험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치료가 있어도 보험 기준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게 적용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환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해야 해요. 정기적인 공청회도 열고, 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죠. 개인은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데,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개인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한다는 걸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 학회에 더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 좋은 프로그램으로 승부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학회를 향한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요.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2016년 16대 회장
김덕경 교수



소통과 협력을 잊지 않는 학회이기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부서든지 학회든지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단체든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바탕이 되어야 상생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거든요. 분위기가 좋으면 일할 맛이 나요. 연구할 맛도 나죠.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해야 하는 것은 있어도 하고 싶은 것은 없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소통과 협력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럼 잘 운영될 거예요.

학회는 혼자서 잘 하는 사람보다 같이 잘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혼자 하는 사람은 굳이 원하지 않아요. 저는 같이 일하는 내과 교수들에게도 곧잘 그런 말을 해요. 정말 같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같이 일할 사람이 절실하다고. 이게 초창기에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지금도 20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자라야죠. 서로 조화를 이뤄야죠.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2017-2018년 9대 이사장
김효수 교수



진짜 협동을 하자

이제 우리 학회가 20년이나 됐으니 어른이 된 거죠.
전문가와 전문가가 만나는 것이니 마찰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죠. 진짜 협동을 할 수 있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 진짜 협동을 해야죠.

진짜 협동은 상대방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잘 듣는 거예요.
그 전에 선배님들이 다 잘 해오셨기 때문에 20년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야겠죠. 선배는 후배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고요. 사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사회가 요구하고 학계가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정부와 기업에 제안을 하며,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과
연구를 완성시켜야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해요. 성인이
되면서 어려움도 겪고, 위기도 있었지만 잘 헤쳐가고 극복하며 잘
성장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협동을 하며 앞으로 20년, 30년도 잘 가봅시다.



휴먼 네트워크를 넣은 성공한 비빔밥이 됩시다

우리 학회의 장점은 연합체 성격을 가진 큰 엔터프라이즈라는 거예요. 여러 내용물들이 함께 섞여 있죠. 그런 학회가 20년을 잘 유지하며 왔다는 것만 봐도 앞으로가 걱정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발전하고 성장할 거예요. 이미 맛있게 비벼진 비빔밥이니까. 성공한 비빔밥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앞으로도 잘 비벼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료들이 좋아도 고추장을 너무 조금 넣거나 참기름을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너무 오래 섞거나 너무 대충 섞어도 못 먹어요. 진짜 성공한 비빔밥이 됩시다.

그러려면 휴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해요. 인생이 원래 휴먼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해요. 아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서로를 알리고 노력하고, 친해지고, 관계가 생겨야 해요. 그래야 더 잘 비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비빔밥에 꼭 휴먼 네트워크를 잘 넣어서 잘 비비자고요.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보람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계속 잘 개최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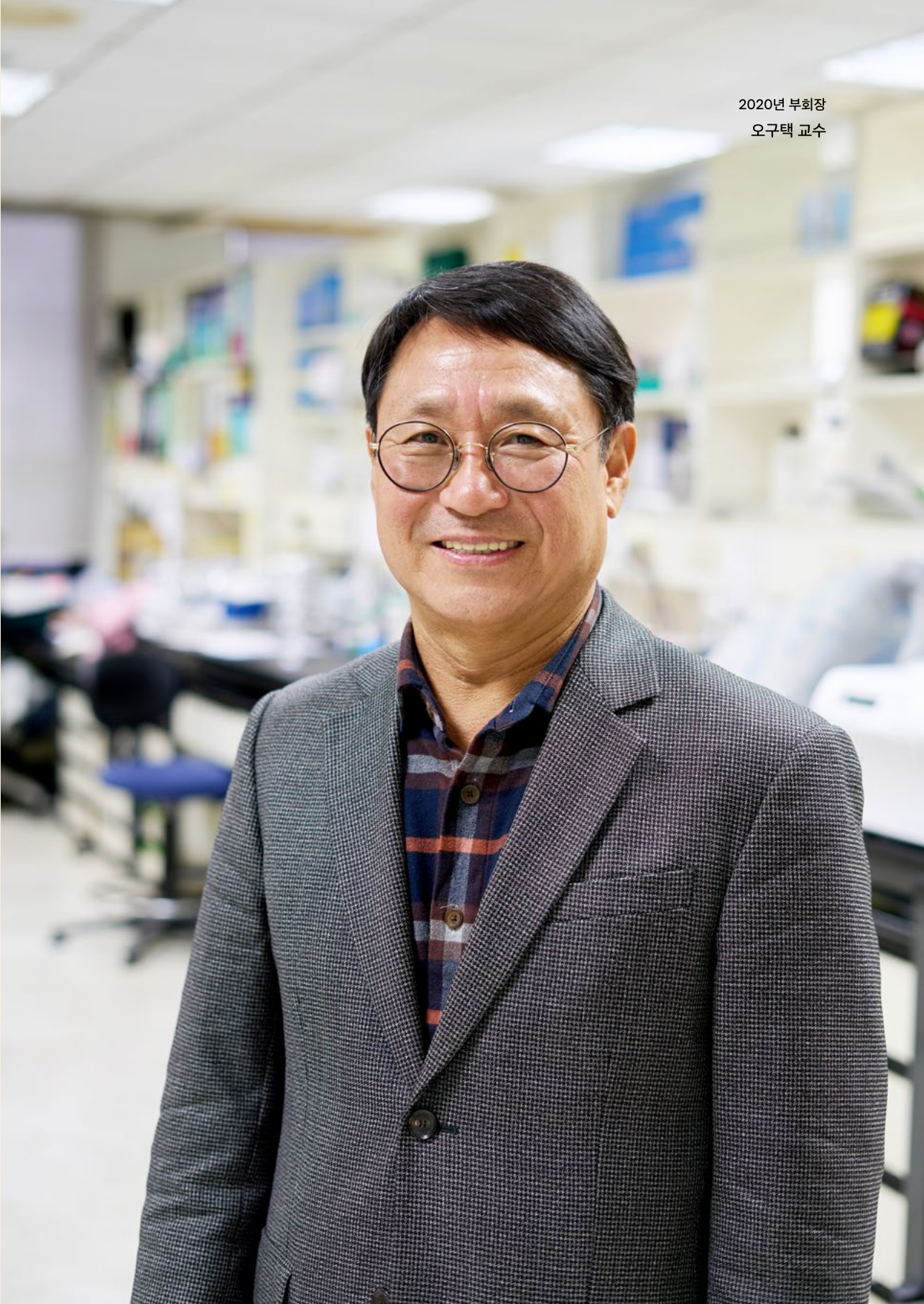
나는 20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IVBM2020의 성공적 개최예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른 거였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치러지지 않은 학회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임상연구 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고, 기초연구자들도 많이 모였어요. 세계적으로 탑클래스에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죠.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맺을 기회가 마련되었고,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앞으로를 바라보면 내가 예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슴 뛰는 국제학술대회가 계속 잘 개최되는 모습이 떠올라요. 벌써 이렇게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하는 학회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얼마나 더 기회가 많겠어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오래 지워지지 않을 일이기도 해요. 추억이고 성과이죠. 앞으로 열릴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더욱 발돋움할 학회가 저의 청사진이에요.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2020년 부회장
오구택 교수



기초연구를 중요하게 여기길

우리 학회가 창립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40년, 50년, 100년을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기초연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임상엔 레지던트 기간 동안 혹은 강사 기간 동안 배워서 하면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고 금방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기초연구는 1~2년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5년, 10년 아주 장기간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기초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최근 들어서 기초연구에 전념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학회는 젊은 회원들이 기초연구를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젊은 연구자들을 잘 이끌어주는 학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JLA가 더욱 성장하기를

우리 학회는 지금까지 협력을 참 잘해온 학회라고 생각해요. 각자 다 목소리를 내지만 그 목소리들이 잘 융합이 되어 왔고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리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협력을 잘하는 학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잘 되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학회가 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공식 학술지 JLA가 더욱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JLA 1호를 만들 때 참여했거든요. 몇 년 뒤에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받을 때까지 함께했어요. 저에겐 자식 같은 JLA입니다. JLA를 생각하면 참 기특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JLA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Scopus와 PubMed Central (PMC)에 다 등재될 만큼 잘 자랐지만, 앞으로도 잘 자라서 더욱 인정받는 세계적인 학회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학회이기를

이상지질혈증에 필요한 홍보를 할 때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쉽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얘기할 때는 약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우리만의 용어잖아요. 게다가 우리도 통일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각자 쓰는 용어가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인 발전과 연구도 중요하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참 중요해요.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연구라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올해는 ‘헬스브리즈 14가지 임상영양사가 전하는 식이요법’을 잘 만들어냈는데 활용이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작은 책자로 만들고, 홈페이지 업로드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도 올해 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작업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언어와 설명이었어요. 앞으로도 꼭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어렵지 않은 학회가 되기를 바라요.



KSoLA For us | For growth | For the people | For the future

2021-2022년 식품영양이사
신민정 교수

2021-2022년 식품영양간사
임현정 교수

2013-2016년 식품영양이사
김은미 교수

2017-2018년 식품영양이사
정효지 교수



2011-2012년 식품영양이사, 2017 부회장
김양하 교수

2007-2008년 식품영양이사, 2018 부회장
이명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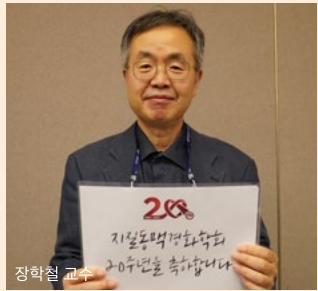
“당시에 학회에서는 영양학의 관심이 식품 전체로 옮겨지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기초와 임상에서 모두 식품으로서 바라보는 영양이 몹시 새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지질·동맥경화학회가 영양소와 질환 간의 메카니즘을 포함하여 영양소를 가진 식품으로 접근했던 것이 호평을 받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2001-2002년 식품영양이사
조여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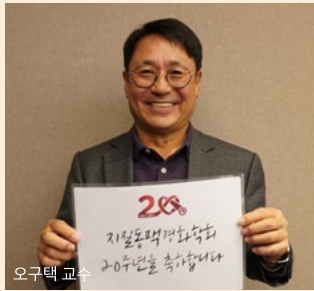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장학철 교수



최동훈 교수



오구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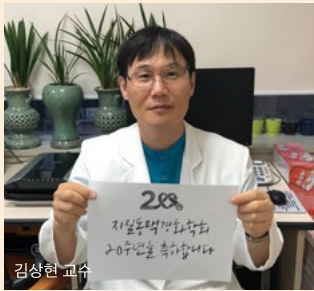
허경선 교수 연구실원들



박수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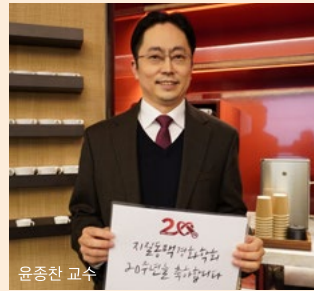
김재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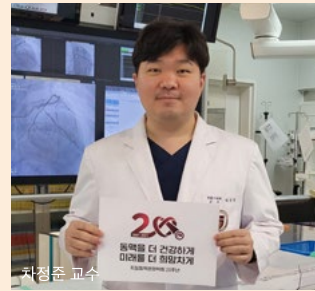
김상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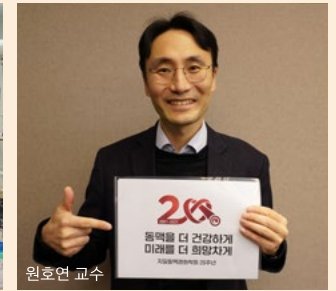
김대중 교수



윤종찬 교수



지정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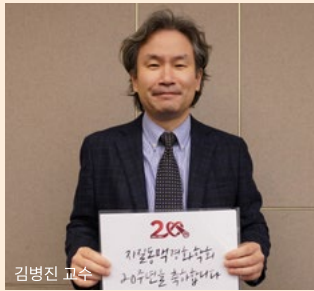
원효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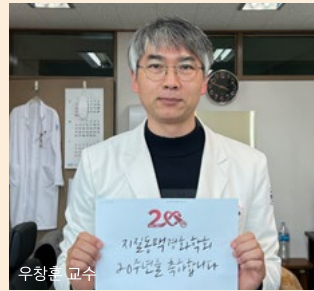
김철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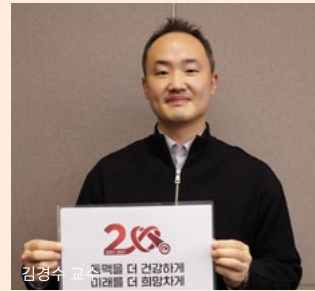
이상현 교수



김병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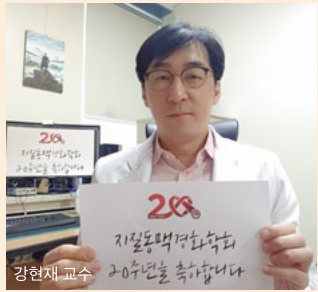
우창환 교수



김경수 교수



양아람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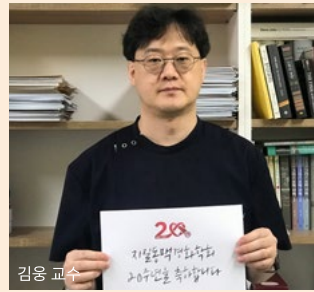
강현재 교수



정인경 교수



홍순수 교수



김웅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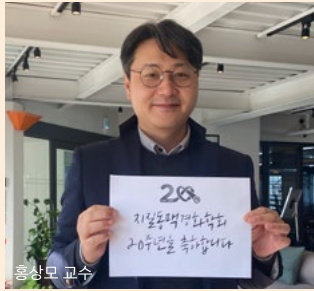
왼쪽부터 박수현, 박상민, 서대철, 노정현, 조형아, 진은선, 김병진, 김재택, 나진오 교수



최성운 교수



임현정, 신민정 교수



홍상도 교수



진은선 교수

에필로그

기존의 통사와 다른 20년사를 마무리하며, 앞을 바라보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기획이사
김대중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20년사를 준비할 때 고민이 많았다. 보통의 통사가 역사를 담은 백과사전같은 느낌으로 책꽂이에 꽂혀있기만 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의 20년사는 조금 다르길 바랐다. 그러려면 글보다는 사진을 더 많이 담고, 활동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보다는 활동을 함께 했던 분들의 생생한 말을 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잠깐 시간을 내서 한숨에 훑어보면 우리 학회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보집같은 느낌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 동안 우리 학회에 애정을 갖고 열정을 바친 임원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1990년 한국지질학회를 만들어 1대 회장을 지낸 최영길 교수나 200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로 통합을 이룬 초대 이사장 이흥규 교수를 비롯하여 역대 이사장, 회장을 맡아 학회를 이끌어주신 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20년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학회의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 분명했다. 더불어, 그들의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임원을 하던 당시의 고민이나 현재 학회의 미래를 위한 조언도 녹음하였다.

21세기 통사에 어울리도록 그들의 음성을 PDF에 담아 회원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였지만, 감동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작업이었다.

이제 우리 학회는 어느덧 20년의 길을 걸어온 중견학회가 되었다. 신진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20년을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이다. 다시 신입생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이다. 20년사를 통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 몸을 돌려 앞을 바라보고자 한다. 학회를 먼저 이끌어 주었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는 통합과 소통, 신진연구자의 확대, 국제학회로의 발전이다. 특히 젊은 회원들이 들어와서 지질학과 동맥경화학을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통사를 만드는 입장에서 초창기 학회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가 거의 없어 안타까웠다. 앞으로 30년사, 50년사를 생각할 때 디지털도서관을 잘 만들어 두는 것이 간절하다. 중요한 시기마다 영상이나 음성을 잘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지면을 빌려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신 신현호 교수와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인터뷰에 응하진 못하였지만 20년사를 응원하고 지켜봐 준 임원들과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주년 기념 홍보영상



Healthful Arteries,
Hopeful Future

동맥을 더 건강하게, 미래를 더 희망차게



Full Ver.



Short Ver.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년사

Healthful Arteries, Hopeful Future

동맥을 더 건강하게, 미래를 더 희망차게